석사학위논문

반지의 제왕 촬영지 안내서

The Lord of the Rings: Location Guide book

이안 브로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박 기 석

2005년

석사학위논문

반지의 제왕 촬영지 안내서

The Lord of the Rings: Location Guide book

이안 브로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박 기 석

2005년 7월

반지의 제왕 촬영지 안내서

지도교수 박 경 란

박 기 석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7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박기석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5년 7월

The Lord of the Rings: Location Guidebook

by Ian Brodie

Ki-Seok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Kyeong-ran Park)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ly 2005

서문

18세였을 당시 나는 웰링턴을 떠나 덜그럭거리는 북섬행 기차에 몸을 실은 채 처음으로 톨킨의 책을 읽고 있었다. 12시간동안의 여정동안 나는 책에서 눈을 때고 이와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곤 했다. 그 순간은 모든 게 중간계처럼 보였다. 이게 20년 전 일이다. 그 이후로 반지의 제왕은 내게 더 이상 소설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방대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이야기로 자리잡았다. 톨킨이 창조한 중간계는 약 6000년 혹은 7000년 전 지구의 신화를 상세하게 다룬 이야기에 기초한 것이다. 내게는 환타지라기 보다 역사로 읽혀졌고 지금은 기록이 사라진 고도의 문명이 발달한 사회와 환경으로 보였다.

중간계를 재현한다는 건 정말 멋지면서도 매우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의 도움과 지역적 특성 덕분에 특별한 영화가 제작될 수 있었다. 이런 곳에서 영화가 제작될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없었다. 그렇게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자연이 어우러진 다양한 풍광과 주요 제작사에 소속된 유능한 뉴질랜드 스텝들과 함께 하는 영화제작만이 성공의 길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년 간의 기획 끝에 1999년 10월 11일, 나와 헌신적인 출연진, 그리고 2500명의 제작진은 영화 같은 대장정에 나섰다. 우리는 관객들이 보는 중간계가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었고 톨킨이 빈틈없이 창조한 세계를 샅샅이 조사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다. 나는 촬영 전에 딱 들어맞는 영상을 얻고자 다시 책을 펼쳐 해당 대목을 읽곤 했다.

우리가 호비튼을 제작한 웨이카토 농지는 옛날 영국을 떼어 여기로 옮긴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호비튼이 따뜻하고 포근하며 사람 사는 느낌이 들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화 제작에 들어가기 1년 전부터 바위틈 사이로 잡초가 자라도록 놔두고 관목과 조그만 정원을 조성해 단순한 촬영 세트장이 아닌 멋진 장소로 만들어놓았다. 여러분이 백앤드의 동그란 초록색 문을 열면 안에 빌보 배긴스가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들도록 했다. 와카파파 스키장의 급격한 경사면은 이곳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며 황량하고 황폐한 풍경이 이미 모르도르를 완벽하게 재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깊숙이 가려진 골짜기, 황량한 황무지, 외딴 곳에 있는 신비로운 산맥과 숲이 우거진 저지대 계곡들은 톨킨의 세계를 나타내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우리는 이 모든 걸 뉴질랜드에서 찾았다. 대부분의 지역이 헬리콥터로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작진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보이지 않는 이득도 있었다고 생각해 본다. 험난한 지역이 주는 고난과 궂은 날씨가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중간계를 통해서 등장인물들의 여정에 강한 현실감을 심어주지 않았나 생각해본다. 우리는 궂은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루아페후산, 마보라호수, 카이토크 지방공원, 쿡산과 올림푸스 산같은 혹독한 환경에서 촬영에 임했다. 이 지역의 풍광과 때 묻지 않은 아름다움은 영화를 찍기에 이상적인 장소를 제공해 주었다.

촬영장소 100군데 가운데 어디든지 서서 톨킨이 창조한 등장인물이 내 눈앞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걸 보는 건 제작자, 작가, 프로듀서로서 최고의 기쁨을 맛보는 체험이었다. 이 정도 규모와 범위, 웅장함이 넘치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험이며 18살이었을 당시 기차간에서 책을 읽던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다.

제작진 대부분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문외한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이 멋진 촬영장소와 첨단 컴퓨터 기술이 어우러져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가 평소에 보는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영화들과는 다른 차별화 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 안내책자의 도움을 받아 톨킨 팬들은 중간계의 마법과 복합성에 대한 특별한 통찰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 촬영했던 장소를 탐험 해 볼 수 있다.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이 책이 우리가 영화촬영을 시작하기 전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있었다면 장소 물색하는 데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피터 잭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뉴질랜드 신화 소개

태초에 이오(Io), 부모없는 이오(Io-the-parentless), 끝이 없는 이오(Io-the-endless), 무한의 이오(Io-the-timeless), 무제한의 이오(Io-without-limit)이 있었다.

그가 움직이더니 거대한 무(the Great Nothingness)가 생겨났다. 그것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거기서 심장을 찾았고 거대한 무는 불타올랐다. 마치 마음을 갖고 있는 존재로 보였다. 그리고 꿈을 가지길 소망했다. 심장은 형태를 갖추더니 고동치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100만년이 지났고 점점 성장하면서 그 수가 늘어났다. 그리고는 그림자가 되어 어둠, 밤, 잉태의 밤, 선조를 잉태하는 밤이 되었다.

하늘에는 활동적인 굳센 남성인 랑지우니(Ranginui)가 살고 있었다. 땅에는 조용한 여성 파파투아누쿠(Papatuanuku)가 살고 있었다. 둘은 연인으로서 같이 숨쉬며 살았고 끝을 모르는 밤(Night-that-know-no-end)에서 건강한 아들 70명을 낳았다. 아들에는 분노가 나무의 도끼와도 같은 지배의 신 휘로(Whiro-the-dominant), 내쉬는 숨 자체가 바람인 원소의 신 타휘리(Tawhiri-of-the-elements)가 있었다. 물결이 끊임없이 밀려와 땅을 침식시키는 바다의 신 탕카로아(Tangaroa-of-the-seas), 인간이 전쟁을 알게 하는 손을 가진 벌건 얼굴의 신 투(Tu-of-the-red-face), 그리고 평화의 토대를 쌓은 품위의 신 토롱고(Turongo-the-gentle)가 있었다. 지상의 과일을 관장하는 풍요의 신 하우미아(Haumia-the-abundant), 조금만 움직여도 지구에 지진과 여진을 일으키는 막내신 루아우모코(Ruaumoko-the-lastborn)이 있었다. 그리고 신념과 행위로 전 세계 구석구석을 형성한 사색의 신 테인(Tane-the-thoughtful)이 있었다.

이들의 부모를 갈라놓아서 위에는 하늘, 아래는 땅이 생겨나게 한 신은 테인이었다. 그러고 나서 비탄에 잠긴 부모의 눈물이 세계를 가득 채우자, 테인은 랑지누이(Ranginui)가 어머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얼굴을 볼 때마다 서로 헤어졌음을 상기시키지 않도록 설득했다.

테인은 하늘에 별을 수놓아 세상을 밝혔으며, 태양은 맨 꼭대기에, 그리고 달은 아버지 머리보다 약간 아래쪽에 놓았다. 처음으로 고귀한 집을 세웠으며 지금까지도 모든 집을 주조하는 본보기로 남아 있다. 집은 창조의 신 이오(Io-the-creator)자신의 지시에 따라 하늘 위에서 구해 온 신의 지식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나무, 새, 벌래, 물고기를 창조해서 어머니의 옷을 입히고 단장했다. 마침내 테인은 최초의 인류인 여성을 창조했으며 모든 인류의 자손이 나왔다. 그러고 나서 영원의 빛이 비추는 세계가 창조되었으며 이 땅에서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친척이었다.

반인 반신인 매듭의 신 마우이(Maui-of-the-topknot)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여름과 겨울은 여러 차례 싸움을 거듭했다. 성직자 형인 타마누이(Tamanui)에 의해 길러진 마우이(Maui)는 우주의 비밀을 보여주었다. 그가 나무, 새, 물고기, 도마뱀 형태로 변신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 사이에 존재했던 관계를 드러낸 것이다. 마우이는 이러한 기술을 습득하고 가족들을 정복하기 위해 돌아왔다.

두려움 없이 마우이는 자신의 여자조상인 무리랑가훼누아(Murirangawhenua)의 지식의 마법턱뼈를 구할 수 있었다. 그는 여세를 몰아 인간들의 생활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늘을 재빨리 가로지르던 태양을 잡아서 속도를 늦췄다. 그러고 나서 불의 신 마후이카(Mahuika, keeper-of-the-fires)의 마지막 불꽃을 나무의 심재에 불어넣음으로서 인간이 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아버지를 찾아 저승에 갔으며 아버지가 죽음의 여신 히네누이테푸(Hine-nui-te-pu, the Goddness-of-death)의 손에 죽임을 당하기 전에 신성한 섬들을 건져냈다.

힘의 신 마우이(Maui-the-relentless)는 신성한 턱뼈를 갈고리로 사용해 지금의 태평양인 테 모나우이 키와(T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Moanaui a Kiwa)의 심해에서 대어를 낚아 올렸다. 그러나 그에게 멋진 선물을 가져다주신 신께 경의를 표할 때, 탐욕스런 눈을 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4형제가 칼을 들고 고기에게 다가갔다.

죽음의 고통 속에서 물고기는 갈기갈기 찢겨져 나가 협곡과 골짜기, 언덕, 그리고 산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가오리형상을 한 물고기는 뉴질랜드 북섬이 되고 마우이의 카누는 남섬이 되었다.

물고기 머리는 현재 수도인 웰링턴이 되었다. 섬 중앙을 가로지르는 산자락은 물고기의 등뼈이다. 동쪽해안에서 서쪽해안까지는 등지느러미인 타라나키(Taranaki)가 보인다. 타우포호수(Lake Taupo)는 마우이가 탔던 배이며, 심장은 우레웨라스(Ureweras)에 위치한 마웅가 포하투(Maunga Pohatu)에 있다. 북섬(Northland)은 가오리의 휘날리는 꼬리부분이다. 끝에서 끝까지, 물고기에서 카누까지 한때 원시섬이었던 뉴질랜드의 다양한 양극성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수세기전 항해사 쿠프(Kupe)가 아내와 가족과 함께 안개와 구름으로 휩싸인 뉴질랜드를 발견하자 흰 구름이 길게 늘어져 있는 섬이라는 뜻의 아오테아로아(Aotearoa)라는 이름을 붙였다.

크리스 위니타나

촬영장소 물색과정

장소물색은 주로 촬영장소 물색반이 선봉에 나서 전 지역에 있는 후보지를 샅샅이 물색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톨킨이 "반지의 제왕에서 배경을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톨킨의 저서를 참고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배경을 목록으로 작성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상상해 봐도 촬영장소 물색반이 책을 꼭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데이브 코머, 로빈 머피를 비롯한 여러 명은 뉴질랜드를 돌

아다니며 찍은 사진과 비디오테이프를 내게 보내왔다. 그것은 배우를 캐스팅 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물색과정은 언제나 같았으며 누구든지 물색한 장소가 담긴 자료를 보내고 우리가 선택의 폭을 좁혀 나가면서 만족스런 장소를 발견하면 "답사" 차 그 장소에 갔다.

나를 포함한 앤드류 레스니, 촬영감독, 수석조감독(the First Assistant Director)인 카로 커닝햄, 그리고 기술지원팀이 한 조가 되었다. 우리는 예술적 관점에서 풍경을 바라보곤 했으며 무엇보다도 촬영에 적합한지 그리고 톨킨의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드는지 여부를 가늠해 보았다. 그러고 나서 물류적 측면에서 생각해봤다. 어디에 트럭을 세워야 하는지가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어디에서 식사해야지? 촬영지로 가는 길이 있는가 -길이 없을 때도 있었다-하는 문제에도 봉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멈춘 건 아니었다.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았지만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책에 나와 있는 대로인가' 하는 것이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피터 잭슨

중간계를 카메라에 담으며

피터잭슨은 활동적이면서도 매우 거친 카메라기법을 고수하기 좋아했으며 장면 하나하나에 엄청난 열정을 쏟아 부었다. 그 결과 우리가 접하는 고정된 관점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을 담아냈다. 영화에서도 마찬가지로 피터잭슨은 이러한 유기적이고 진솔한 느낌을 유지하고자 했다. 촬영장소마다 배치된 기술자들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독창적인 기법을 고안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피터잭슨이 필요로 하는 특별한 기술을 실현한 부서는 카메라 부의 촬영조 및 카메라 조작조였다고 생각해본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기기를 고안해 내 피터감독이 상상하던 걸 실현시킬 수 있게 해 주었다. 덕분에

여러분은 카메라가 숲과 강을 가로질러 날아다니며 잡아낸 멋진 장면들이 담긴 웅장하고 거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리 해리슨과 촬영팀은 당일 날 이런 촬영도구를 고안해서 피터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멋진 생각들을 실행에 옮겼다.

우리가 반지의 제왕을 촬영하면서 무엇보다도 즐겨보았던 건 큰박쥐(flying fox) 카메라기법이었다. 글레노치 근처에 위치한 파라다이스(Paradise)에 깊숙이 뻗어있는 숲이 있는데 여기서 우르크하이가 언덕을 밀어닥치듯이 내려와 불쌍한 호빗들을 쫓는 장면을 촬영했다. 피터감독은 카메라를 관객들의 시각에서 보도록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팀은 나무 꼭대기에 이러한 엄청난 장치를 설치했다. 그리고 여기서 곧바로 가는 길을 찾아서 수백 피트에 걸쳐 있는 숲을 관통하는 케이블을 매달아놓았다. 그러고 나서는 케이블에 대형 카메라를 매달자 카메라는 줄을 탄 채 나무를 지나며 날아다녔다. 그날 밤은 히스테리를 일으킬 정도로 달려야 했다. 불쌍한 우르크하이가 카메라가 어디에 배치되어있는지 모른 채 미친 듯이 빨리 달렸기 때문이다. 카메라가 운 나쁜 우르크하이를 덮칠 정도로 너무 가까이 와서 우르크하이가 앞으로 빨리 달려 카메라가 날아간 경우도 2번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영화를 촬영하는데 무척 힘이 들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뉴질랜드의 중간계

중간계의 풍경은 톨킨이 이전에 알고 있던 장소에 대한 기억과 고대문서를 연구하면서 접하게 된 신화 속의 땅에 관한 상상력이 합쳐져 발현된 것이다. 톨킨이 묘사한 *샤이어*, *안개산맥*, 금빛 숲의 *로스로리엔*은 실제 있는 곳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는 각자 가지고 있던 기억과 꿈을 소설에 적용한다. 톨킨의 영국에 대한 사랑이 중간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영국이나 유럽 다른 지방에서 역사 속에서 너무 과장되지 않아 톨킨의

대서사시를 재현하기에 걸맞는 지역을 찾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나는 유럽을 연상케 하는 지방에서 중간계를 찾기는 했지만 수 천년간 계속해서 사람이 살아 왔다는 흥미를 불러 일으킬만한 증거가 부족했다.

우리는 데이브 코머가 이끄는 촬영장소 물색팀을 따라 *호비튼*, *리븐델*, *브리*를 완벽하게 재현한 지역과 마치 *호빗*이 이미 땅을 판 듯한 언덕이 있어 *호비튼*으로 하기에 걸맞는 지역을 찾으러 먼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우리가 강처럼 지나갈 수 있게 지류가 형성된 호수를 발견했으며 다리, 정미소와 *'파티나무인 그린드래곤'*그리고 *백앤드*로서 아주 이상적인 장소도 있었다. 여기에 고대의 나무만 있으면 되었는데 브라이언 매세이가 이끄는 환경부가 나무를 세우고 플라스틱 잎사귀도 장식하는 등 공을 들였다. 그러고 나서 수개월 간 흙을 옮기고 건물을 짓고, 관목을 세워 정원을 조성해서 마치 *호빗*이 여러 세대에 걸쳐 거주한 것처럼 만들었으며 그 결과 내가 지난 25년간 살아왔던 데본셔 지방을 언뜻 연상시키게 할 정도로 만족스런 모습을 갖추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리는 *브리* 주변지역이 다소 온화한 기후에 덜 개간된 상태이길 원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웰링턴 근처까지 가게 되었다. 여기서 미라마 반도 군 소유 토지를 주변 배경촬영용으로 임대하는 한편, 달리는 조랑말 여관과 주변지역을 시툰(Seatoun)에 위치한 포트 도셋 막사 주변에 조성했다.

와카파파에 있는 비수기에 들어간 스키장에서 *반지원정대* 서막을 촬영하는 동안 *모르도르와 운명의 산* 비탈에서 치를 전장을 찾기 위해 루아페후산이 우선적으로 둘러볼 장소가 되었다. 피터잭슨 감독이 *에민 무일* 때문에 좋아하던 지역 근방을 *프로도*와 샘이 왔다 갔다 했다. *에민 무일*은 암석들이 미로처럼 광활하게 펼쳐진 지역으로서 주인공들이 *암흑의 문*으로 가는 길을 찾으려는 여정에서 처음으로 *골룸*을 만나게 되는 장소이다. *웨더톱*이 나오는 장면은 웨이카토 항구역에서 촬영했다. 이 지역은 푸르른 풍광 속에서 기암 석회층과 이상한

외관을 한 나무들이 히에로니머스 보스(Hieronymus Bosch)의 그림 배경과 아주 잘 어울린다. 우리는 아몬 술의 폐허를 스튜디오에 짓고 메트 페인팅 기법을 이용해 배경을 첨가하면서 반지의 악령의 공격을 촬영하기 손색없는 언덕을 찾아냈다.

우리는 얕은 여울목을 찾기 위해 스키퍼스 캐년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이곳이 *아웬*과 *프로도*가 *반지의 악령*과 대면한 장소이다. 여러분들이 스크린에서 본 컴퓨터그래픽으로 만들어낸 홍수는 엄청난 폭우가 내린 후 세트장 일부를 쓸어버린 진짜 홍수보다 약간 멋있는 정도였다. 나는 언제나 흥미롭게 생긴 암반지형이나 암반 결을 찾아 나섰는데 내가 찍은 사진의 '뼈대' 또한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그린 바위와 돌이 언제나 똑같지 않도록 했다. 스키퍼스 캐년은 멋진 내용물을 제공했으며 또한 *안두인강*으로, 그리고 *아고나스*로 가는 *반지원정대*의 여정을 담기에 매우 적합한 멋진 배경을 선사했다.

*리븐델*을 찾는 과정은 멀고도 아득했으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키는 장소를 찾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과 일치하는 장소를 찾지는 못했다. 결국에는 카이토케를 선택했는데 이 지역에 멋지고 고요한 숲지대가 있고 웰링턴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포, 사진, 그림과 오래 전부터 영화를 찍을 것으로 알고 웨타 스튜디오에 지은 미니어처 같은 영화 촬영물이 주변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와카티푸 호수 북쪽 끝단에 있는 글레노치 근처에 위치한 파라다이스도 *로스로리엔*을 찍는 부분에서 두각을 보였다. 여기서 더 큰 나무를 심고 *파스 갈렌*과 *아몬 헨*장면도 촬영했지만 말이다. 나는 *로한* 대부분의 장면이 찍힌 풀번 주변 경관을 좋아했다. 더욱 웅대한 스케일에서 보았을 때이긴 하지만 경사진 언덕과 화강암산이 다트무어를 연상케 하기 때문이다. *메스 벤* 근처에 위치한 포츠산은 널따란 계곡에 고립된 언덕을 깎아지른 절벽이 떠받치는 듯한 가장 멋진 장소를 제공해주었는

데 톨킨이 묘사한 *에도라스*와 완전히 일치했다. 우리는 *황금의 전*당 외부를 짓고 주변 건물을 산 정상에 짓고 *문지기집*과 나머지 건물을 산기슭에 지었다. 그 사이에 모든 시설을 제작이 끝나고 나서 추가한 것이다.

우리는 *에민 무일*과 *검은 문* 사이에 위치한 *죽음의 늪*에 있는 늪지대를 항상 주시해 왔다. 대부분의 장면을 헬기 위에서 폭 넓게 촬영하면서 결국에는 모든 장면을 환경부가 제작한 세트장 위에서 찍었다. 한 번 착륙하고 나자, 우리는 촬영이 끝날 때마다 스태프 수를 세어야 하는 장소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뉴질랜드가 반지의 제왕배경으로서 내 희망을 충족시켜주고도 남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무성한 농지, 나무, 강에서부터 험준한 계곡, 끝이 없는 초원, 길과 고압선 탑의 방해를 받지 않고 솟아있는 산까지 다양한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땅이 오래되지 않았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형이 형성된 후에도 지층에 음곡이 새겨지고 있다. 지금보다 훨씬 이전 시대의 영국이 높은 봉우리와 톨킨의 페이지를 비추어주는 더욱 밝은 빛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유사한 풍경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본다.

뉴질랜드의 비옥하고 아름다운 풍광 대부분을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만 자국에 대한 사랑과 여정에 대한 열정을 보일 수 있는 가이드와 더불어 볼 수 있게 된 것이 기쁨이자 영광이다.

앨런 리(컨셉 예술가 겸 세트감독)

촬영장소 물색과정

내가 시드니에서 매트릭스제작을 구상하고 나서 웰링턴으로 향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나는 전에도 뉴질랜드에서 촬영한 적이 있었으며 친구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고 피터 잭슨과 프란 웰시와 만나서 제작팀에 합류해 *반지의 제왕* 제작 여부에 대해 논의하게 되길 고대했다.

우리는 초콜렛물고기 까페에 있는 해안 쪽에서 성대한 점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가 웰링턴 남부해안지방에서 느낄 수 있는 햇살이 비치는 오후였으며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식사했다. 작품 구상이 창의적이고 일관성 있었으며 매력적인 면도 있음을 느꼈다. 나는 반지의 제왕과 같은 방대한 스케일의 영화 3부작을 제작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떠올리는 건 물론이요, 피터 잭슨 같은 혁신적인 감독과 함께 작업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한번에 영화 3편을 찍는 일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며, 가볍게 시작할 일이 아니었다. 영화 한편을 시간에 맞춰 끝내는 것도 힘든데 3편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고 출연진, 제작진, 영화 제작팀의 헌신과 의욕, 능력을 평가하는 거대한 시험대였다.

뉴질랜드는 존 로날드 류얼 톨킨이 그려낸 *중간계* 풍경 전체를 간직하고 있었다. 우리는 자동차, 헬리콥터, 도보, 혹은 보트를 이용해서 남섬과 북섬을 돌아다니며 장소를 물색했다. 톨킨의 작품에서 상세하게 묘사된 대목을 준비하고 나서 피터 잭슨과 컨셉 예술가인 앨런 리와 존 호의 합작을 통해 그려낸 일러스트를 토대로 그림 속에서 세밀하게 묘사된 부분과 거울처럼 일치하는 지역을 찾아 나섰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다.

남섬으로 짧은 비행을 했던 기억이 난다. 이륙부터 착륙할 때까지, 앨런은 몇 가지 일러스트를 스케치하면서 제안한 세트가 풍경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보여주었다. *리븐델*을 촬영할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 카이토케를 돌아다니면서 장비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옮겨야 할지, 세트장은 어디에 세워야 할지, 그리고 어디서 액션장면을 촬영해야 할지 계획했던 것도 기억난다. 그러는 동안, 앨런과 존은 산중턱에 조용히 앉아 우리가 물색한 장소에 설치할 다양한 세트 장치를 설정하며 일러스트를 그리고 있었다.

소설 '*반지의 제왕*'을 영화화하기 위해, 우리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통해 중간계의 독특한 땅을 파악해서 두드러지게 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는 뭔가를 표현하고 싶었다. 피터와 나는 처음부터 영화 촬영하기 쉬운 장소보다는 촬영하기 어렵지만 멋진 장소에서 촬영하기로 약속했다. 2편 '*두개의 탑*'에서는 *에도라스*인 포트산을 성공적으로 촬영하기 위해 고심한 증거를 볼 수 있다. 그러한 다짐이 없었으면, 쉽게, 하지만 운 없게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뉴질랜드가 아닌 공터나 청색 스크린 세트장에서 촬영했을지도 모른다.

영화제작자로서 스튜디오에 재정적 손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계산적인 태도로 인해 영화제작의 의미가 퇴색되어도 안 된다. 수익이 언제나 중요한 요소이기는 해도, 그와 동시에 대본에서 중요한 부분을 촬영할 자금도 확보해야 한다. 반지의 제왕에서 이러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숨이 멎게 할 정도로 놀라운 경치를 자랑하는 뉴질랜드였다. 여러분이 포츠산 위의 고립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길을 만들어야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 그대로의 때묻지 않은 아름다움과 풍경을 카메라에 담아내기 위한 반지의 제왕같은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다. 확실히 영화가 가진 매력이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는 곧 박스오피스에서 증명되었다. 피터 잭슨이 상상한 장소가 얼마나 구체적이든 간에 촬영지 물색팀은 빈손으로 돌아오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고립된 산 정상, 우거진 숲, 청명한 호수, 누군가의 손길을 원하는 무시무시한 사막이 있었다. 때로는 이러한 외곽지역이 톨킨의 *중간계*만큼 두 배로 늘어나기를 원하는 느낌이 들었다. 톨킨이 묘사한 장면이 바로 우리들 앞에 3차원적인 장관을 드러내며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카메라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다. 엘런 리와 존 호가 포츠산에 올라 *에도라스* 일러스트를 스케치하거나 마타마타를 떠돌며 *간달프*가 *백앤드*에 도착하는 영감을 찾지 않았다는 건 믿기 힘든 일이다.

영화제작물품을 조달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로케장소 100곳과 3백 개에 달하는 세트장이 뉴질랜드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촬영이 있는 날이면 3개 내지 4개 팀, 심지어는 5개

팀이 동시에 촬영을 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뉴질랜드 영화 촬영팀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 내가 영화를 제작했을 때의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세트장에 오랫동안 있거나 악천후 속에서 촬영을 강행할 때도 한 마디 불평 없이 자신감에 가득 찬 자세로 촬영에 임했다. 이들의 독창성이 영화 장면 하나하나에 녹아들어 있다. 이 정도 규모, 범위, 웅대함은 내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이었다. 또한 시간이 날 때마다 뉴질랜드를 여행했다. 우리는 제물낚시, 번지점프, 스키, 요트경기, 하이킹 외에 여러 가지 실외활동을 해본 걸 비교해가며 이야기를 했다.

내가 계속 전 세계에 배급하는 영화를 만들 때마다 뉴질랜드에서 보낸 시간을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다. 뉴질랜드처럼 통근할 때마다 신호등에 걸리는 일도 없고 긴 여름동안 여러분의 집 창가 바로 밖에 멋진 일출을 볼 수 있는 자연미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미국 태생이긴 하지만 내생에 뉴질랜드에 돌아오게 되면 마치 집에 도착한 듯이 오자마자 언제나 신선한 공기를 한 번 힘차게 들이마실 내 모습을 상상해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배리 오즈본

웨이카토 항구(Port Waikato)- *웨더톱(Weathertop)*

주인공 *프로도*가 *암흑기사단*의 습격을 받은 *웨더톱*의 오래된 망루는 자연과 스튜디오 세트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아라곤*이 *호빗* 일행을 이끌고 언덕기슭으로 가는 장면은 사유지에서 촬영된 것이지만, 오클랜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웨이카토 항구근처에 가면 이와 매우 유사한 전경을 볼 수 있다. *아몬 술*에 도착하려면, 오클랜드에서 나와 서던모터웨이(Southern Motorway)를 타고 푸케코헤로 가면 된다. 이 지역은 비옥한 토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최상품의 감자와 야채를 수확하는 곳이다. 계속해서 투아카우 방향으로 가

게 되면 웅대한 웨이카토강(뉴질랜드에서 가장 긴 강))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30킬로미터를 더 가면 웨이카토 항구 근처에 위치한 조그만 바다마을에 도착하게 된다. 북섬 중심부에 위치한 타우포 호수에서 350킬로 정도 더 가면 마침내 여기서부터 웨이카토강이 바다에 이르게 된다. 웨이카토 항구는 도심에서 벗어나 수영과 낚시로 휴식을 취하려는 많은 오클랜드주민들에게 인기있는 휴양지이다.

이 휴양지를 뒤로하고, 남쪽방향으로 약 10킬로 정도 더 가다보면 나 있는 유일한 길(비포장 도로)을 따라가면 *에레기온*의 *웨더힐*을 곧바로 떠올리게 하는 비경을 접하게 된다. 이 길은 초목이 무성한 골짜기와 개울을 따라 굽이져 있으며 주변 언덕들은 매우 장엄한 석회석 표면과 절벽이 어우러져 여러분을 압도한다. 이곳에는 잠시 쉬며 점심을 즐기고 *중간계*의 경치를 음미할 수 있는 장소가 많다.

여러분이 *호비튼*으로 여행하려면, 헤밀턴으로 가는 길을 따라 마타마타로 갈 수도 있다. 약 3시간 정도 소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신다르어(회색엘프의 언어)로 '바람의 언덕'이라는 뜻의 아몬 술은 제3시대에 엘렌딜이 웨더톱힐에 축조한 망루이다. 1409(TA)년 마술사왕 앙그마르가 이끄는 대군이 탑을 공격하기 전 까지만 해도 이곳에 팔란티르석 1구가 있었다. 팔란티르석은 안전하게 옮겨졌지만 탑은 버려지고 함락 되어 폐허만 남게 되었다.*

마타마타(Matamata)－*호비튼(Hobbiton)*

북섬에 위치한 웨이카토 지역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비옥한 농토 가운데 하나이다. 1번 주립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가다보면, 길게 뻗어있는 오클랜드 시가지를 지나게 되고 어느덧 목장과 죽 늘어선 관목이 나타난다. 경사가 완만한 수풀 언덕지인 마타마타는 영국의 일부지역을 이 곳에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준다. 이 곳 지명은 마오리어로 “돌출부” 혹은

“두렁”이라는 뜻이며 돌출 된 부분이 늪지로 변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테 와하로아 파(Te Waharoa Pa)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 지역이 발전하게 된 것은 1855년 요크셔에서 이민 온 조시아 클리프톤(Josia Clifton)이라는 영국인의 공이 크다. 조시아는 사업차 남쪽으로 여행하면서 마오이 지역주민과 끈끈한 우호관계를 맺게 되었고, 1884년에는 56,000에이커에 달하는 이곳의 늪지를 사들였다. 이 지역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던 그는 대대적인 늪지 배수공사에 착수하여 목초, 보리, 밀과 귀리가 있던 자리에 방대한 목장을 축조하게 된다. 몇 해가 지나자 이 지역은 떡갈나무와 느릅나무 옆으로 관목지가 조성되면서 그 모습이 바뀌었으며, 철도가 오클랜드에서 남부로 뻗어나가면서 번창하게 되었다. 오늘날 마타마타는 여전히 지역 서비스도시로 남아있지만, 마타마타의 풍부한 목초지 덕택에 또 다른 수지맞는 상품이 생겨났다. 웨이카토 지역이 뉴질랜드의 주요 경주마육성지역으로 발전한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널찍한 거리와 주민들의 친근한 표정이 특징인 이 도시로 가는 길은 두 가지이다. 포케노(Pokeno)에 이르기 전 길목에서 꺽어 SH27번 도로를 계속 가거나 헤밀턴 SH1번 도로를 타고 계속 가다가 피아레레(Piarere)쪽 방향에서 좌회전하면서 가면 된다.

히누에라(Hinuera) 도로(SH27)를 타고 마타마타 남부를 여행하다 보면 사레홀(Sarehole)과 톨킨이 살았던 영국의 시골지방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이 지역에 *호비튼*을 만든 이유가 확실해진다. 관목이 나 있는 길은 *샤이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목장과 풀이 우거진 구릉지를 어렴풋이 보여준다.

피아레레에서 잠깐 멈춰서보자. 바위투성이의 급경사면이 한때 물이 흘렀던 언덕 측면에 외로이 우뚝 솟은 채 있는 모습을 보면, 이곳의 기암층은 한때 골짜기 전체가 강바닥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히누에라(Hinuera)층으로 알려진 이곳의 암석층은 마지막 빙하기(5만년에서 만5천년 사이)기 동안 강바

닥에 충적토와 자갈, 침전진흙이 쌓여서 형성된 것이다. 1999년에 이 목장지는 *중간계*의 *샤이어*에 위치한 *그린 힐 카운티*로 변모하게 되었다.

매일 *호비튼*으로 가는 안내관광이 있다.(개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음.) 2시간이 소요되는 이 관광코스는 마타마타 방문객정보센터에서 예약을 해야 한다. 미니밴에 오르면 알렉산더 소유의 양 목장 일부지역이 어떻게 *샤이어*로 바뀌었는가를 가이드가 설명해주면서 *중간계*로의 여행이 시작된다. 여러분은 *호비튼*으로 갈 수 있도록 뉴질랜드군대가 꼼꼼하게 만든 길을 따라 가게 되며 가파른 언덕을 오르고 나면 순간 세트장이 바로 눈앞에 펼쳐진다. *호비튼*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에 가이드는 세트장 제작 과정을 설명해준다. 물론 사진 찍을 기회도 많다. 적당한 곳에 위치한 사진 안내도를 보면 영화촬영기간 내내 세트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유능한 세트디자이너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세트장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심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투어의 백미는 *백샷 로우*에서 걸어 올라가 *중간계*에서 가장 유명한 호빗굴인 백앤드까지 가는 코스라고 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내로 돌아오면 거리 중심부에 위치한 이 지역 상징인 워크맨 까페가 있다. 독특한 실내장식과 약간은 기이한 막대기가 특징인 이곳은 점심이나 저녁을 들면서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더러브렛 종마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지역 경마장에 가서 태양이 지평선위로 떠오를 때 말 500마리가 아침 운동 겸 뛰어 다니는 광경을 볼 것을 권한다.

북섬 중부 촬영지

뉴질랜드 북섬 중앙은 지리적 특징이 뚜렷하고 서로 다른 풍광이 대조를 이루는 지역이다. 이곳을 여행하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은 평화로운 환상의 땅에 있는 강과 호수, 목초지에서부터 화산폭발 후 잔해만 남은 용암과 화산재가 널브러진 지역을 동시에 접하게 된다.

이 지역은 한때 세계에서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곳으로 지난 5000년 전에 있었던 가장 규모가 큰 화산폭발로 인해 타우포 호수가 생겨났다. 26500년 전에 오루아누이 화산이 분출하면서 호수의 모양새를 형성했고, 그러고 나서 서기 181년에 더욱 큰 폭발이 일어나 50킬로미터 높이까지 연기를 내뿜으며 계속해서 속돌과 재, 화산탄을 30킬로 거리까지 날려보냈다. 화산폭발이 위력이 얼마나 컸던지 유럽과 중국 상공에서도 볼 수 있을 정도였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넓은 호수(619㎢)근처에 위치한 타우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낚시터 역할을 하는 통가리로 강과 통가리로 국립공원 내 산악 지역, 그리고 로토루아의 온천휴양지를 포함한 용암대지 전역이 이상적인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다.

부글부글 끓는 머드풀과 간헐천, 그리고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호수가 한데 어우러진 로토루아의 지열 원더랜드는 북쪽으로 차로 1시간에 갈 수 있는 곳에 자리잡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 가운데 하나이다.

타우포 남부지역에 통가리로 국립공원이 있는데 뉴질랜드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세계문화유산지정지역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지역원주민인 나그티 투화레토아(Nagti Tuwharetoa)가 루아페후산(Ruapehu), 나우루호에산(Ngauruhoe), 통가리로(Tongariro)산을 백인에게 넘기면서 1887년에 공원이 설립되었다.

**뉴질랜드는 정말 굉장한 곳이에요!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제각기 다른 지역을 돌지 않는 이상 한 곳에서 이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곳은 없을 겁니다. 중간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가 뉴질랜드에 다 있거든요. 정말 완벽 그 자체입니다. 산, 숲, 늪지, 사막지대, 경사진 언덕, 그리고 바다 등 지역에 따라 풍경도 다양하죠. 실제로 이 모든 게 반지의 제왕에서 묘사되었답니다.*

-일라이저 우드(Elijah Wood:프로도역)-

통가리로 국립공원(Tongariro National Park)-*모르도르(Mordor)*

타우포에서 그랜드 샤또 호텔로 가면 타우포 호수 근처 투랑기(Turasngi)로 가는 SH1번도로를 타게 되는데 이곳은 세계에서 유명한 통가리로 강에서 낚시를 하고 싶어하는 낚시꾼들에게 최적의 장소이다. 뉴질랜드에서 낚시하려면 안내센터와 지방 환경 보전부에서 발급하는 낚시허가증이 있어야 하며 해당지역 낚시철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하다.

랭지포(Rangipo)에서 SH46번 도로방향으로 우회전해서, 41km를 더 간 후 SH48번 도로방향으로 좌회전해서 가자. 길을 따라 10킬로 정도 더 가다보면 그랜드 샤또 호텔이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서 4 킬로 떨어진 곳에 타우하이(Tawhai)폭포가 있는데 여기를 둘러보자. 길을 따라 25분 정도 걷다 보면 폭포가 눈앞에 펼쳐지는데 여기가 가볼 만하다. 너도밤나무와 청셀러리 소나무가 빽빽이 늘어선 곳에 있는 강이 오래 전 형성된 용암 분출지 위로 흘러 떨어지며 암반못을 형성하는 지점이 나오면 여기가 *헤네스 안눈*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호텔 가운데 하나인 그랜드 샤또는 통가리로 국립공원 내에 있는 루아페후산기슭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어 장관을 이룬다. 타우포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 호텔은 1920년대에 축조되어 천장유리와 마주보는 거대한 바닥을 자랑하며 가장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반지의 제왕 제작진은 수 주 동안 이곳에 머물며 회의실을 촬영 본부 및 편집용 필름을 보기 위한 상영관으로 사용했다. 물론 이 호텔에서 머물면서 얻는 큰 이점은 차로 15분이면 *모르도르* 중심부에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북섬에서 가장 높은 산인 루아페우산(2796m)은 과거 화산분출로 지난 세기동안 웰링턴 남부까지 분출물을 날려보냈다. 부글부글 끓는 분화구는 강한 산성을 띠며 때때로 산기슭으로

화산재와 화산탄을 날려보내기도 한다. 화산대 일부는 통가까지 이어지는데 전역지진측정기기가 있어서 앞으로 있을 화산활동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와카파파 스키장-*모르도르, 에민 무일(Mordor and the Emyn Muil)*

겨울이 되면 와카파파 스키장은 스키를 타고 난 후 모임을 즐기는 스키이용객들의 행락지가 된다. 그리고 스키철이 지나면 다시 구릉성 화산암지대로 변모한다.

중간계 제 2시대의 끝을 맺는 전투장면을 촬영한 이 지역을 방문하려면 차를 타고 이위카우(Iwikau) 마을로 가면 되며 그랜드 샤또 호텔에서 15분 정도 언덕 위를 올라가면 된다. 산위를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고 해도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가는 게 좋다. 분출한 화산암과 가파른 절벽, 화산재가 널려있는 걸 보면 이곳이 *모르도르*임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호텔 본관에서 피너클 능선 방향에 있는 초보자용 스키장 언덕 주변을 따라 북쪽으로 가보자. 그전에, 아래쪽 방향으로 약간 내려가서 능선을 따라 가파른 급경사면이 나 있는 지역으로 가보자. 이 지역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고 위성추적장치 좌표를 통해서만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스키장 언덕과 근처 주차장에서는 *오르크대군*이 *엘론드*가 이끄는 *엘프*와 *인간연합군*을 공격한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고 나서 웨타 스튜디오 특수 효과팀이 컴퓨터 그래픽으로 수천 명의 '배우'를 추가해 전투장면을 완성했다.

촬영하는 동안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생태지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엄청난 양의 카펫을 펼쳐놓아서 카펫 바닥으로 지면을 보호해 *오르크*와 *엘프*가 그 위로 걸어 다닐 수 있게 해놓았다.

피너클 능선 주변에 메즈월(Meads Wall)이라는 암반지대가 있는데 반지의 제왕 2편 '*두 개의 탑*'에서 영상으로 표현되었으며 여기서 *프로도*와 *샘*이 *골룸*을 생포했다. 배우인 앤디 서

키스는(특수복장을 하고) 암반지면을 타고 내려와 *호빗*들을 덮치는 장면을 촬영했다. 그러고 나서 이 장면을 웨타 스튜디오에서 합성한 후에 배우의 실사동작을 토대로 *골룸*을 창조했다.

또한 이 곳에서 *호빗*들이 폐허가 된 *다고라드* 평원을 내려가 *어둠의 문*으로 가는 길을 찾다가 암반황무지인 *에민 무일*에서 길을 잃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지역에 나 있는 바위면을 타고 올라가면 *사우론*이 *중간계* 지배를 둘러싼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계획했던 황량하고 폐허가 된 땅 *모르도르*에 금새 빠져들게 된다. 특히 날씨가 흐린데다가 구름이 봉우리주변을 둘러싸고 있을 때 가보려고 하면 오싹한 기분이 든다. 이 분지 내에서 *모르도르*를 통해 운명의 산에 다가가려는 *호빗*의 대서사시가 펼쳐지는 몇 장면을 클로즈업 촬영했다.

겨울에는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높은 고도와 불규칙한 날씨로 인해 대부분의 촬영이 이 곳에서 이뤄졌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후의 동맹 대전투'는 엘프와 인간이 사우론의 거대한 악의 세계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서 일어난 것이다. 중간계에서 2번째로 가장 규모가 큰 군대를 소집한 동맹군은 3431(제2시대)년 다고라드 평원에서 오르크 대군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사우론은 바라드 두로 퇴각하고 동맹군이 7년간 이곳을 포위했다. 3441(제2시대)년에 사우론은 다시 전투를 하기 위해 나왔고 이 전투에서 엘프의 왕인 길 갈라드가 사망했으나 이실두르가 사우론의 손가락을 잘라 반지를 빼내고 사우론은 소멸하고 말았다.*

**모르도르(신다르어로 '어둠의 땅')는 중간계에서 가장 황폐하고 황량한 지역이며, 가파른 산등성이가 삼면을 자연스럽게 둘러싸고 있다. 이 땅에 오로두루인(신다르어로 '불타는 산') 화산이 생겨나고 제2시대에는 이곳에서 사우론이 절대반지를 만*

들었다. 모르도르는 제2시대 초기부터 수천 년 동안 사우론이 장악하고 있다가 '최후의 동맹전투'가 끝난 후에 버려졌다. 이곳은 거의 3천년간 버려져 있다가 2951(제3시대)년에 사우론이 다시 돌아와 바라드 두(신다르어로 '암흑의 탑'라는 뜻)라는 악의 요새를 재건했다.

오하쿤(Ohakune)－*이딜리엔(Ithilien), 모르도르(Mordor)*

다음 지역에 가려면 오하쿤 마을로 잠깐 차를 타고 가면 된다. 이 지역은 화산회토가 풍부해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당근을 생산한다. 스키 타는 걸 계획한 경우가 아니라면 겨울에 방문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다. 날씨가 더 추워지는 기간에는 술집과 레스토랑이 슬로프에서 하루 종일 스키를 타고 넘어지면서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한 스키어들로 붐벼 마을전체가 술렁거린다. 'O'술집 종업원은 이 지역에서 촬영한 걸 자세히 기억하고 있다. 바로 이 술집에서 영화 제작 완성을 축하하는 중요한 파티를 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배우와 스텝은 오하쿤을 수 주 동안 촬영할 본부로 활용했다. 많은 이들이 파우더혼 샤또 호텔에 머물렀고 2개 레스토랑과 가장 인기 있는 파우더혼 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호텔은 *이딜리엔*과 *모르도르*를 방문하기에 최적의 장소이며 또 다른 혜택으로 올랜도 블룸, 일라이저 우드나 피터 잭슨이 머무르던 방에 묵을 수 있다.

이딜리엔에 가려면 투로아 스키장길(오하쿤 산 관광도로라고도 알려져 있음)까지 가보자. 지원자들의 모금운동과 노력 끝에 오하쿤 산간도로는 1963년 개통되었다. 이곳에는 산책로와 등산로(트램핑 코스)가(자세한 사항은 지역 환경보전부 센터를 방문해서 알아볼 것) 많다. 길은 조금씩 오르막을 유지하다가 한 쪽 면에서 루아페후산, 그리고 다른 한쪽 면으로는 오하쿤 주변의 구릉진 언덕이 선사하는 멋진 풍광을 접할 수 있게 된다.

산에 있는 너도밤나무 숲을 통해 길을 가다 보면 정확한 촬

영지에 도착할 수 있으며 계속 가다 보면 망가와로 폭포(Mangawhero)에 이르게 된다. 분기점에서 차를 세운 후 강바닥 아래로 내려가 보자. 여기가 바로 *스미골*이 기뻐서 팔짝 뛰어가 물고기를 잡은 곳이다. 폭포 쪽을 바라보면 바위가 무성한 강바닥 면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마지막 촬영을 위한 배경이 되는 언덕은 메트 페인팅 기법(주: 컴퓨터 그래픽 등으로 배경을 실제와 비슷하게 그린 후 실사장면과 합쳐서 처리하는 기법)을 이용해서 더욱 거대한 봉우리를 화면에 담았다.

이 장면을 촬영한 날 우연찮게도 갑작스럽게 폭설이 내렸다. 지방소방대가 눈을 치우고 나서 앤디 서키스는 잠수용 고무옷을 입고 웅덩이를 헤엄 쳐가는 장면을 촬영해야 했다. 앤디는 피터 잭슨 감독이 '잘 했지만 한 번만 더 찍자'고 한 말을 떠올리며 혹한 때문에 심장마비에 걸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샘*과 *프로도*가 폐허가 된 기둥이 늘어선 탁 트인 늪지를 걸어가는 장면은 강 상류에서 촬영했다. 개울을 건너서 50미터만 걸어가면 나무들과 풀이 질척질척한 땅에 빼곡이 들어서서 탁 트인 지역을 둘러싼 조그만 개척지에 도착하게 된다.

오하쿤에서는 왕가누이 항공이 제공하는 헬기관광코스를 통해 *모르도르* 장면을 담은 촬영지 일부를 둘러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도로를 통해 갈 수 없는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헬기만이 유일한 운송수단이다. 파우더혼 샤또 호텔 외곽에서 헬기로 출발하면 *샘*이 운명의 산을 올라가기 전에 냄비와 프라이팬을 던지던 루아페후산으로 갈 수 있으며 장대한 화산지대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와카파파를 방문하고 루아페후산 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산정 호수 위를 날아가게 된다. 여기서는 원시림부터 용암이 흘러 형성된 암석과 청록빛 호수를 볼 수 있다.

오하쿤으로 돌아와서 *안두인강*으로 가려면 와이오루를 경유해서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으며 타이헤페(Taihape)방향 SH1도로를 타서 남쪽방향으로 가면 와이오루(Waioura)의 국

립육군박물관이 있는데 가 볼만하다.

**비밀 본부인 헤네스 안눈(신다르어로 '일몰의 창문')은 곤도르인들이 사우론이 이끄는 하라드인들과 오르크들에 맞서 게릴라작전을 벌이기 위해 축조한 전략기지이다. 숲에 난 비밀통로로 갈 수 있는 이 곳은 높은 폭포 뒤에 가려져 있는 여러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으며 후반에는 이딜리엔의 순찰자가 피난처 및 기지로 사용했다.*

**파우더혼 샤또 호텔의 친절에 감사하며. 이곳은 이 신성한 섬에서 가장 많은 걸 제공해 준 오아시스 같은 존재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 상쾌한 산 공기에 둘러싸인 이곳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여기 와서 살라고 계속 손짓하고 있다. 이 호텔은 가장 기억에 남는 엘프족의 휴양지와 비견할 만하다.*

-숀 어스틴(Sean Austin:샘 와이즈 역): 파우더혼 샤또 호텔 방명록에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랑지티케이 강 협곡(Rangitikei River Gorge)-*안두인강(River Anduin)*

1편 '*반지원정대*'에서 나온 *안두인강*은 뉴질랜드 4개강을 하나로 연결하는데 타이하페 근처에 있는 랑지티케이 강이 맨 처음 모습을 드러낸다. 지리학용어로 '젊은 강'이라는 뜻의 랑지티케이는 가파른 절벽층을 깎아 내리며 태즈먼 해로 흘러간다.

이 지역으로 가장 빨리 가려면 타이하페에서 약간 남쪽 방향으로 차를 몰아 오호투(Ohotu)에서 좌회전해서 가면 된다. 번지점프대(북섬에서 가장 높음)가 이 근처에 있으니까 "하이타임 번지'라고 씌어진 표지판을 따라 약 15분 동안 뉴질랜드의 '중심부' 지역과 덤불을 지나면 된다. 번지점프공원에 도착하고 나서 일방통행다리를 지나가자. 80미터 아래 지점에서

방대한 규모의 협곡을 따라 흐르는 강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채 드러내어 멋진 장관을 연출한다.

랑지티케이강 합류점에 위치한 모황고강(Moawhango) 에서도 *안두인강*이 흐르는 장면을 담았다. 다시 주요 도로로 돌아가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일방통행다리를 거쳐 지나가면 된다. 맨 끝단에 차를 세워 되돌아가면서 양치식물이 깊숙이 줄지어 자라는 협곡을 따라 모황고강이 랑지티케이강쪽으로 세차게 흐르는 또 다른 장관을 볼 수 있다.

혼자서 *안두인강* 여행을 하고 싶으면 차를 타고 망가웨카(Mangaweka) 남쪽방향으로 18킬로 정도 가보자. 바로 아래에 DC-3 까페가 눈에 띄는데 여기가 랑지티케이강 급류타기 본부이다. 이 지역에서 촬영에 협조했던 하류안전요원들이 '랑지티케이의 그랜드 캐넌'라는 이름으로 촬영지점을 거쳐가는 당일 생태관광을 매일 제공한다. 모든 연령층에 상관없이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배를 탄다는 건 조용히 하류를 따라 흘러가면서 뱃전에 편안하게 앉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태관광을 하면서 결핵성암석의 경이로움과 고생대 패총도 감상할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와이타레레숲(Waitarere Forest)-*트롤쇼 숲, 오스길리아스숲 (Trollshaw Forest and Osgiliath Wood)*

와이타레레숲은 카피티해안(Kapiti Coast)에 있는 폭스톤 남쪽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북쪽에서 포로타하오(Poroutawhao)를 지나 오른쪽을 지나면 와이타레레 해변이 나오므로 잘 살펴보자. 카피티 해안은 해안을 따라 나 있는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오는 웰링턴주민들의 휴양지로 유명하다. 와이파레레 해변은 연중 내내 개방된 야영장과 아이스크림가게가 있는 전형적인 해안가 마을이다.

와이타레레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나오는 이름 없는 조그만 샛길을 통해 숲 가장자리에 위치한 주차구역으로 갈 수 있다. 여기서부터는 차량출입이 허용되지 않으며 거대한

나무 밑으로 제대로 조성된 여러 갈래 길을 통해 걸어갈 수는 있다.

인공림은 와이타레레 남쪽과 북쪽지역으로 뻗어 있으며 토종덤불과는 생김새가 다른데 대부분의 길이 등산을 하기에 적합하다.

공원 내 여러 지역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오스길리아스 숲*에서 *프로도, 샘*, 그리고 *스미골*이 *파라미르*와 *트롤쇼의 숲*을 뒤로하고 떠나는 장면과 *아웬*이 나무사이를 지나는 장면을 촬영했다.

**리븐델 서쪽에 위치한 트롤쇼 숲은 에텐무어에서부터 내려온 트롤들의 출몰지역이다. 2941년(제3시대), 빌보 배긴스가 트롤 3마리에게 붙잡혔으나 머리를 써서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트롤들이 서로 다투게 만들었으며 결국 트롤들은 돌이 되었다.*

오타키, 오타키협곡(Otaki and Otaki Gorge)-*샤이어를 떠나며 (Leaving the Shir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웰링턴에서 차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오타키 마을은 오랜 역사만큼이나 태양이 환하게 비추는 곳이다. 이곳에 있는 마오리 정착촌은 1300년이 넘었으며 1819년까지 평화로운 공존을 지속해나갔지만 1826년 응가티토아(Ngati Toa)의 침공에 의해 무너지고(유명한 족장 테 라우파라하의 지휘하에) 1826년 '와이오루아 전투'에서는 전쟁이 종식되었다. 테 라우파라하가 대족장으로 선출되자 부족 내 갈등이 끊이지 않았지만 1839년 베이 오브 아일랜즈(Bay of Islands)에서 옥타비우스 헤드필드 선교사가 이곳에 와 '기독교 개종'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했다.

1886년까지 철도가 점점 규모가 커져 가는 마을까지 이어지고 정착민들이 목재재련 및 토지를 개간하면서 철로도 확장되었다. 이듬해부터는 농경도 활발해졌으며 1930년대 초반에는 과수원경영자들이 북쪽으로 이주해서 도시 시장에서 계속 수

요가 증가하는 과일과 야채를 생산했다.

과수원업과 농사가 여전히 주요산업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매일 1시간에 걸쳐 웰링턴을 통근하면서 오늘날 오타키는 웰링턴의 교외주택지(도시를 통근하는 사람들의)가 되었다.

오타키 협곡 길 근처에서는 평화롭고 비옥한 정원과 농지를 지나 그리운 *샤이어* 경계로 가는 젊은 *호빗*들의 여정을 그리면서, 오타키의 실제산업과 흥미로운 대칭을 보여주고 있다.

오타키 협곡으로 가는 분기점은 오타키 강을 지나면 오타키 남쪽 바로 오른쪽 지점에 나온다. 이전에 폐쇄되었다가 곧 좁다란 비포장도로가 된 관계로 이러한 도로에서 운전하는데 익숙지 않은 운전자들은 19킬로미터 구간도로를 이용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같은 영화를 촬영하는데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대륙이 생긴지 오래되지 않았고 자연그대로이면서 야생의 모습을 간직한 이곳은 모든 게 특별하기만 합니다.*
-케이트 블란쳇(Cate Blanchett:갈라드리엘 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오타키협곡(Otaki Gorge)-*샤이어를 떠나며(Leaving the Shire)*

*'반지원정대'*에서 *호빗*이 *샤이어*를 떠나는 장면을 촬영한 지역은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었지만, 오타키 협곡 여행은 적극 추천한다. 차를 타고 협곡으로 가면서 잠깐 동안 풍경이 바뀌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며, 왜 뉴질랜드가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촬영하기에 최적의 장소인지를 확실히 보여준다. 구릉성의 농지대를 뒤로하고 가다보면 도로 폭이 곧 좁아지며 아름다운 리무(rimu)소나무와와 라타(rata)덤불이 자라는 지역으로 접어들게 된다. 도로 한 켠에 있는 덤불에서 쉬면서 협곡을 통해 타즈만해로 흘러 들어가는 오타키강을 어렴풋이 볼 수 있다.

이곳의 풍광은 톨킨이 묘사한 *샤이어* 외곽지역과 매우 유사

하며 길 끝에 다다르면 강 옆에 멋진 피크닉장소들이 눈에 띄며 뜨거운 여름햇살로부터 시원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주는 덤불이 우거져 있다.

길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는 루아힌능선 에서 어퍼헛에 있는 카이토케 지방공원으로 가는 등산로를 통해 4일간의 도보여행도 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이곳에서 *리븐델* 몇 장면을 촬영했다.

파라파라우무(Paraparaumu)－*펠렌노르평원(Pelennor Fields)*

한 장면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촬영하고 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로 잇는 기법은 영화제작자의 마법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며 대 서사시적인 *펠렌노르평원의 전투*가 그러한 능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이다. 전쟁용 와이드 샷 은 모두 트와이젤(74페이지 참고)근처 남섬 중부지방에서 촬영했지만 대부분의 클로즈업 샷은 웰링턴에서 북쪽으로 45분 지점에 있는 파라파라우무 근처 퀸 엘리자베스 공원에서 촬영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여러분이 오타키에서 웰링턴 남쪽방향으로 갈 경우, 차를 몰고 파라파라우무 바로 남쪽에 위치한 멕케이즈 교차로 근처 공원으로 가도 된다. 대부분의 촬영이 청색스크린배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다지 눈에 띌만한 건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목장지에서 *나즈굴*과 *뮤마킬*이 쓰러진 장면을 촬영했다. 공원이나 근처 해안가를 따라 산책을 하다보면 잠시동안 모든 걸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제2차 세계대전 기간동안 주둔하던 미 해병대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미국 기념관에 잠시 멈춰 볼만도 하다.

파라파라우무라는 이름은 마오리어이며 아마도 이곳에 도착한 군대가 버려진 흙 솥에서 약간의 음식찌꺼기만 발견했기 때문에 지은 이름이 아닌가 추정해본다. 파라파라(parapara)가 '음식찌꺼기'라는 뜻이며 우무(umu)는 '흙솥'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펠렌노르평원(신다르어로 '고립된 땅')은 *미나스티리스*에 있는 *곤도르 도시*를 둘러싸는 비옥한 토지를 뜻한다. *람마스 에초*(신다르어로 '둘러싸는 벽')라고 불리는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중간계* 제 3시대에서 가장 큰 전투인-*펠렌노르평원의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웰링턴(Wellington)

반지의 제왕 팬들에게 웰링턴은 영화제작 중심지로서 피터 잭슨의 본거지이자 3 Foot 6, 윙넛 필름, 웨타 스튜디오와 웨타 디지털이 밀집해 있다. 피터 잭슨은 ' 나는 뉴질랜드, 특히 웰링턴이 우리가 영화를 제작하는 데 일조 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고 언급한 바가 있다.

서점들은 앞 유리창에 톨킨 홍보물을 붙여 놨으며, 사이드쇼 웨타(Sideshow Weta)가 제작한 *오르크*가 특산품가게창문에서 노려보고 있는 걸 볼 수 있으며 심지어 이곳에는 중간계 장관도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웰링턴은 커다란 항구와 숲이 우거진 언덕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다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정겨움이 묻어나는 소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이전에 웰링턴을 지칭하던 이름은 마우이어로 테 우포코 오 테이카(Te Upoko o teika)로서 마우이의 물고기 머리라는 뜻이다. 쿠프(Kupe)라는 폴리네시안 개척자가 10세기 경 웰링턴을 처음 발견했다. 1839년 첫 배가 도착하자 뉴질랜드회사 사장이 웰링턴공작1세의 이름을 따서 최초의 유럽정착촌이 된 이곳을 웰링턴이라 불렀다.

1863년 11월, 의회에서 결의안이 제출되었으나 오클랜드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가 수도건설을 위해 중심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1865년 7월 26일 웰링턴에서 첫번째 국회가 개회되었다.

화재와 지진으로 인해 많은 건물이 파괴되었지만 68번 나이안가 오두막(Nairn Street Cottage)은 1858년부터 지금까지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초기건축물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가 볼만하다. 램턴키(Lambton Quay) 부두에 있는 구 정부청사도 가 볼만하다. 석조건물을 모방해서 설계된 이 곳은 건물 전체가 목재로 만든 목조건물이다. 근처에 위치한 의사당건물과 비하이브(Beehive)건물도 당일 관광일정에 포함시키는 게 좋다.

웰링턴(Wellington)-도심지역

웰링턴 도심 중심부는 쉽게 갈 수 있으니깐 편한 신발을 신고 하루정도 시간을 내 관광 명소나 흥미 있는 곳에 가보는 게 좋다. 우선 가볼 만한 장소로 케이블가(Cable Street)에 있는 뉴질랜드박물관, 테 파파 통가레와(Te Papa Tongarewa)가 있다. 흥미로운 현대적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찬사를 받는 뉴질랜드 박물관은 '직접 체험해보는'전시물들을 다량으로 선보이고 있다. 입장은 무료이지만 일부 전시물은 요금을 내야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저보이스 키(Jervois Quay) 부두와 케이블가 모퉁이에 위치한 영화센터인 뉴질랜드 동영상박물관도 가 볼만하다. 입장은 무료이다. 10 켄트 테라스근처에 엠버시 영화관(Embassy Theater)이 있는데 웰링턴에서 가장 큰 영화관이며 여기서 '*반지원정대*'와 '*두개의 탑*'은 물론 2003년도에는 '*왕의 귀환*' 전 세계 동시개봉 기념시사회를 가졌다. 엠버시 영화관은 최근 보수공사를 해서 이전의 영광을 재현한 웅장한 오랜 영화관에서 볼 수 있는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뉴질랜드 최대 크기의 스크린과 최고의 디지털음향을 자랑하는 엠버시 영화관에서의 영화 관람은 놓쳐서는 안 될 코스이다.

웰리우드(Wellywood)에서 고이 간직할 기념품을 소장하고 싶으면 램턴키 부두 360번지에 위치한 다이목스 서점(Dymocks Booksellers)으로 돌아서 가보자. 뉴질랜드에서 가장 많은 톨킨 저서와 사이드쇼 웨타에서 제작한 소장용 모형을 취급하고 있다.

**2001년 12월 말 앰버시 영화관에서 말 위에 올라탄 반지의 악령이 나오는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 호주 시사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일라이저 우드의 말을 인용하자면, '관객들은 영화가 엄청난 히트를 칠 거라고 했고 순간 나는 락스타가 된 기분이었다...'고 한다.*

웨스트팩 트러스트 경기장(Westpack Trust Stadium)은 물가에 위치한 약간 이색적인 곳이다. 뉴질랜드와 잉글랜드와의 크리켓 경기 당일 날 점심시간에 피터 잭슨은 3만 관중들에게 '암흑의 연설'에 맞춰서 발을 구르고 소리를 쳐달라고 요청했다. 이 육성은 헬름 협곡에서의 전투장면에서 오르크가 외치는 소리로 사용했다.

빅토리아산(Mt Victoria)-'길을 떠나다'

지면상으로 볼 때는 도시 중심부가 전원풍의 *샤이어* 촬영장소가 되기에는 어울리지 않게 보이겠지만 *반지원정대*에서 나온 빅토리아산은 웰링턴 도시개발자들이 탁월한 안목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산 정상에서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남쪽에 있는 쿡해협에서 북쪽 웰링턴시까지-빅토리아산은 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의 일부이다. 웰링턴의 숲과 풍광은 샤이어 외곽지역을 촬영하는 데 최적의 장소였을 뿐 아니라 들어가기도 쉬워 촬영에 언제나 어려움을 겪었던 출연진과 제작진이 쉽게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 1999년 10월 11일은 촬영시작일이자 출연진과 제작진이 뉴질랜드 전역을 도는 274일간의 여정을 기념하는 마지막 날이기도 했다.

이곳에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알랙산더 도로를 타고 가면 되는데 계속 가다보면 마지막에 산 정상에 이르게 된다. 도로에 주차지역도 몇 군데 있으니깐 교차로를 지나 알랙산더 도로로 접어든 후, 1.2킬로 지점에서 왼쪽을 보고 재빨리 우회전하자. 왼쪽과 오른쪽에 나 있는 길목은 숲을 관통하는 내리막길로 접어들게 되며 한 번 더 우회전하면 주변경관이 바로 눈

앞에 펼쳐진다.

길이 어두운 색깔을 한 나무들이 그 위를 덮는 강둑 2개를 관통하기 때문에 초록색 터널 같은 느낌을 준다. 여기서 *프로도*가 길 중간 지점에 서서 두려움에 떨며 *나즈굴*이 다가오는 소리를 듣는 장면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지점에서 산 아래 있는 도시도 볼 수 있으며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무들과 벌레소리가 *샤이어*의 시골길장면을 장식하면서 고요한 적막감이 감돈다.

같은 길을 계속해서 내려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서면 또 다른 장소 두 군데가 눈앞에 펼쳐진다. 왼쪽에 있는 가파른 경사면은 *호빗*들이 미끄러져 내려와 빽빽하게 자라고 있는 버섯을 발견한 지점이기도 하다.

언덕 위 오른쪽에는 나무 2그루가 있으며 그 위로 조그마한 돌출부가 나 있다. 여기서 특별 제작한 큰 나무를 운송해 와서 *호빗*이 숨기 위한 실감나는 뿌리를 제공했다. 바로 여기서 겁에 질린 *호빗*이 *나즈굴*을 피해 숨었으며 땅 속에 있던 벌레들과 거미들은 *나즈굴*의 악한 기운에 반응하고 도망쳤다.

이 길은 도시 쪽으로 나 있는 숲을 관통하며 따스한 여름날에는 이곳에 퍼지는 솔잎 향과 더불어 청명한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이 목가적이면서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장소를 제공한다.

영화 홍보담당자인 클레어 라스킨드 쿠퍼(Claire Raskind Cooper)는 이 지역에서 첫 촬영이 있을 거라는 걸 취재진이 어떻게 알았을까 하고 회상해 보았다. '그때 강둑 위에 올라 사진사들보고 뒤로 물러나라고 했던 생각이 난다.'

**뉴질랜드에는 스코틀랜드와 정말 흡사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크기에서 차이가 날뿐 모든 게 똑같았죠. 아마도 호빗이 본 스코틀랜드가 아니었을까요? -빌리 보이드(Billy Boyd:피핀역)*

빅토리아산과 리알 만(Mt Victoria and Lyall Bay)－*던하로우(Dunharrow)*

빅토리아산에 가보면서 *던하로우*에 있는 *로한군* 진지도 가볼 수 있다. 남섬에서 와이드 샷으로 촬영했지만 '빅토리아산과 리알 만 근처에서는 클로즈업 촬영이 이루어졌다. 빅토리아산에 가려면 캠브리지 테라스를 따라(엠버시 영화관을 지나) 내려와 베이즌 리저브(Basin Reserve)로 가면 된다. 이곳에 도착하면 곧바로 우회전(길 터널을 통과하기 직전에)해서 매우 험준한 엘리스가 정상까지 차를 몰고 가보자. 주차공간이 제한 되어있지만 알랙산더 도로에 있는 공원을 통해서 걸어내려 올 수도 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이 채석장은 *로한군* 텐트 몇 개와 중간지점을 통해 나 있는 길을 덧붙여서 *던하로우*로 개조했다. 여기서 *곤도르인*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서사시적인 출정을 하기 전에 *던헬름*이 *메리*에게 다가가는 장면을 찍었다.

리알 만에서 추가로 몇 장면을 촬영했는데 이 곳은 쿡 해협을 접하는 공항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다. 아일랜드 베이 도로에서 리알 만 주변을 돌아 도리 레슬리공원(Dorrie Leslie Park)이라는 해양공원에 차를 세우자. 이 해변가에서 *호빗*이 여러 차례 서핑을 했고 울타리가 쳐진 지역 뒤에 마주하고 있는 절벽은 *던하로우*로 사용했다.

**던하로우(어둠의 매장터)는 여전히 중간계에 남아 있는 고대인의 유물 중 하나이다. 매장묘이자 여러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 곳은 곤도르가 번성하고 누메노르인이 돌아오기 훨씬 전에 세워졌다. 드위모버그라고 알려진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는 방대한 지대는 로한군의 집결지로 사용했으며 딤홀트 입구이자 사자의 길도 이곳에 있다.*

웨이라라파(The Wairarapa)－소개

웨이라라파는 놀라운 비경이 펼쳐지는 다양한 지역이 분포

해 있다. 웰링턴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포도원과 모험체험과 관광코스가 있어 일상에서 탈피하기 제격이다. 이곳에 있는 포도원도 *반지의 제왕* 제작진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가 되었다.

SH2도로 북쪽으로 차를 몰고 가다보면 길이 리무타카(Rimutaka) 능선으로 이어지면서 허트계곡 도심지에서 곧 덤불이 우거진 언덕으로 바뀐다. 이 멋진 도로를 이용하면서 정상에 이르기 전에 골짜기 몇 군데를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페더스톤(Featherston)과 웨이라라파 경관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리무타카능선은 1878년 페더스톤에 철도가 깔리기 전 까지만 해도 주요 장애물이었다. 일반열차선로도 없었고 경사도 급해서 마찰구동방식으로 운전해야 했다. 존 펠(John Fell)이 고안한 펠엔진(Fell Engine)은 경사진 중앙철로에 맞대어 매끄럽게 굴러가는 수평형 동력바퀴를 이용해서 기차를 리무타카 인클라인까지 끌어올리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1878년에서 1955년까지 운영되던 이 방식이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산등성을 관통하는 터널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8.798km길이의 터널이 1955년 10월 29일에 개통되었고 그동안 사용해오던 펠엔진은 폐기처분되었다. 엔진 한 개는 남아서 페더스톤에 있는 펠 박물관에 전시되어 이전의 영광을 아름답게 재현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페더스톤은 리무타카 터널이 개통된 이후 급성장했으며 현재 이 지역주민들은 허트밸리와 웰링턴에 있는 직장으로 통근한다.

페더스톤은 펀사이드의 본고장이기도 한데 뉴질랜드의 가장 유서 깊은 집 가운데 하나이다. 이렇게 멋진 지역에서 머무르는 것 자체가 생활의 활력소이지만 여기 머무르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로스로리엔* 정원을 둘러볼 수 있다는 점이다.

펀사이드(Fernside)－*로스로리엔, 글라덴평원(Lothlorien and the Gladden Fields)*

펀사이드는 과거의 평화롭고 고요한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부자들과 영향력 있는 인물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엘가의 소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1924년 엘라와 찰스 엘가가 만든 펀사이드는 서재와 거실, 응접실을 포함한 큰방이 있는 포근한 느낌의 저택이다. 이곳에서 원래 있던 욕실 딸린 침실 4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행사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정원도 절대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며 왜 여기를 *로스로리엔* 촬영지로 선택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영국정원디자이너 거투르드 지킬(Gertrude Jekyll)의 설계 방식을 따른 이 정원은 각종 식물들을 심은 여러 개의 '정원방'이 특징이다. 인공호수에서는 *로스로리엔*을 떠나는 장면과 *스미골*과 *디아골*이 *글라덴평원* 근처에서 낚시하는 미공개 장면을 찍었다.

이곳에 있는 나무 산책로는 촬영을 하진 않았지만 매우 멋지며 특히 가을이 되면 절정에 달한다. 낙엽을 밟으며 금빛나무 아래서 산책하는 건 절대적인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주의사항: 이곳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숙박을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로스로리엔(신다르어로 '꿈의 꽃')은 로리엔의 여왕인 엘프여왕 갈라드리엘이 수천년동안 거주하던 곳이다. 안두인강 서쪽에 있는 켈레브란트강 옆에 위치한 이곳은 갈라드리엘과 켈레본이 살고 있으며 금은빛 멜리안 나무의 원산지이기도 하다. 엘프들은 나무 위 가지에 살았으며 갈라드림 혹은 나무엘프라고도 불렸다.*

푸탄기루아 피너클(The Putangirua Pinnacles)- *딤홀트 길(the Dimholt Road)*

뉴질랜드에서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기괴한 지형을 갖춘 푸탄기루아 피너클은 웨이라라파 해안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에 방문해서 즐겁게 놀려면 마틴보로(Martinborough)의 작은 마을에서 하룻밤 묵는 게 좋다. 이곳에는 포도원과 올리브 나무로 둘러싸인 빅토리아풍 건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지방 특선요리를 맛볼 수 있는 유명 레스토랑들이다. 또한 역사적인 마틴보로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케이트 블란쳇과 기타 출연진이 근처 펀사이드에서 촬영하는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푸탄기루아 피너클로 가려면 피리노아(Pirinoa)남쪽 방향으로 45분 정도 가서 케이프 팰리서(Cape Palliser)쪽으로 좌회전해서 가면 된다. 들쑥날쑥한 해안가에 도착하면 곧 환경보전부 주차장이 눈앞에 보인다. 근처에 야영지도 있어서 텐트와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아라곤*의 대장정으로 인해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꼭대기로 가는 길은 세 군데가 있다. 이 중에서 푸탄기루아 피너클 강바닥으로 걸어가는 게(그리고 촬영지로 갈 수 있는 길)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하산 할 때는 서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걸 챙겨 두는 게 좋다.

이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황무지 침식작용'은 시간이 지나면서 강바닥에 있는 자갈바닥이 비와 홍수에 씻겨 형성되었다. 일부 바위는 침식되지 않은 채 남아 꼭대기나 '바위 기둥(hoodoo)'을 형성했다.

여기 보이는 기암기둥 그늘 안에서 *레골라스*가 3편 '왕의귀환'에서 *사자의 군대*에 관한 오싹한 이야기를 했다.

**로한군이 사자의 길이라고 이름 붙인 이 곳은 제 2시대 초기에 던하로우 건설자가 만들었다. 드위모버그 아래 위치한 던하*

로우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유령의 길은 사자의 군대와 이실두르의 후계자 말고는 들어가지 못한다.

어퍼헛(Upper Hutt)-소개

어퍼헛 지역은 다양한 풍광으로 인해 여러모로 영화촬영하기에 최적이다. 근처에 스튜디오도 있어서 짤막한 한 장면만 찍기 위해 수백 명의 인원을 다른 지역에서 데려와야 하는 물류문제도 최소화 할 수 있었다.

어퍼헛 지역은 웰링턴에서 허트계곡을 통해 40분이면 가볍게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이 지역을 탐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준다. 도심지역인 웰링턴과 떨어져 있는 어퍼헛은 조그만 마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대도시에 있을만한 시설은 다 갖추고 있다.

허트계곡은 800년 이상 계속 사람이 거주해오다가 테 아티 아와(Te Ati Awa)사람들이 이곳에 도착하면서 이 지역 강을 풍부한 식량원이자 효율적인 운송로로 이용하였으며 강 이름을'높이 우러러보는 강'이라는 뜻의 테 아와 카이랑지(Te Awa Kairangi)라고 지었다.

1839년에 유럽정착민들이 이곳에 도착했지만 습지대라서 개발이 지연되었다. 하지만 1855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허트계곡의 지형이 융기하고 주변 습지가 마르게 되어 농사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됨에 따라 모든 게 급속도로 변해갔다.

오늘날 어퍼헛 시는 큰 규모로 성장했으며 많은 공원과 관목보호구역, 그리고 강이 결합해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매우 활기 넘치는 교외도시를 형성하고 있다. 어퍼헛 안팎으로 볼거리가 많을 뿐 아니라 라이트하우스라는 최신식 부띠끄 영화관도 있다.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거의 다름없는데 40석이 채 안 되는 좌석에서 대형스크린과 뛰어난 음향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카이토케 지방공원(Kaitoke Regional Park)－*리븐델, 이젠의 여울목(Rivendell and the Fords of Isen)*

카이토케 지방공원은 어퍼헛 북쪽에서 약 12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라루아 능선 기슭에 있다. 2800헥타르 규모의 원시림이 조성된 카이토크 공원은 소풍, 수영, 산책 장소로 유명해 해마다 10만 명 이상이 이곳을 즐겨 찾는다.

공원에 가려면 SH2번 국도에서 꺾어 워터워크 공원을 지나 파쿠라타히(Pakuratahi)로 가면 되는데 그곳에 있는 허트포크 주차장에 차를 세울 수 있다. 이곳 근처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 산책로를 선택해 걸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과 덤불언저리를 따라 다양한 피크닉장소들이 나온다. 카이토케에 있는 잔디밭에서는 야영을 할 수 있으며 화장실과 동전을 넣으면 작동되는 바비큐도 완비되어 있다. 허트와 파쿠라타히강에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풀장은 여름철 기간동안 수영하기에 제격이다.

공원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에는 *리븐델*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으며 *리븐델* 촬영장소에는 제작과정과 최종 완성된 건축물을 보여주는 전시물이 있다. 외부전경 대부분은 컴퓨터그래픽으로 처리되었지만 세트제작자가 이곳에 대형 세트장을 만들었으며 *프로도*가 칼을 맞고 부상에서 회복했던 침대도 볼 수 있다. 인상적인 이곳에는 강까지 죽 나 있는 촬영용 발판이 있는데 인공강과 폭포도 있어 영화제작자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1999년 11월에 30명의 일꾼이 작업에 들어가 2000년 3월과 4월 사이에 있을 촬영에 맞춰 2000년 3월에 세트장을 완성했다. 촬영기간 동안에는 출연진 300명이 이곳에 있었다. 이곳에 온난한 열대림과 강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지역이 *리븐델*을 나타내기에 최적의 장소가 된 것이다.

**리븐델은 신다르어로 임라드리스(깊이 패인 골짜기)라는 뜻이며 안개산맥 서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엘론드가 사우론과*

의 전투에서 퇴각한 이후 1797(제2시대)년에 황무지(바다 동쪽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편안한 집)였던 이곳에 리븐델을 세웠다.

하코트공원(Harcourt Park)－*이젠가드정원(Isenguard Gardens)*

*리븐델*에서 *이젠가드*까지 가려면 몇 주 동안 끝도 없는 황무지를 해쳐나가야 했지만 어퍼헛에서는 15분도 안 되어 도착할 수 있었다. 외딴 지역에 있는 오아시스와도 같은 하코트 공원은 아카타라와 도로(Akatarawa Road)상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여기서 각기 다른 *이젠가드*의 장면이 촬영되었다. 아카타라와 도로는 카이토케에서 돌아오는 경우 SH2번 국도에서 우회전하면 나온다. 하코트 홀리데이공원 바로 옆에는 숙박시설도 있다.

공원의 높은 지대는 *이젠가드*의 정원으로 변모했으며 *호비튼*에서 *절대반지*가 발견 된 이후 여기서 *간달프*와 *사루만*이 처음으로 만났다. 정원은 초록색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곳에 있으며 약간 경사진 곳 위에는 공원벤치가 있다. 지금은 뚜렷하게 표시할 만한 게 남아있지 않지만 정원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다른 촬영장 2곳이 보인다.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잔디 중간을 가로지르는 길(잔디색깔이 바뀌어서 분간하기 쉬웠다)이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정도였다. 영화촬영을 하는 동안에는 잔디를 제거하고 그 위로 자갈길을 만들어서 쇠사슬울타리를 양쪽길가에 설치해 길을 완성했다. 귀에 익숙하지 않은가?

바로 *이젠가드*로 가는 진입로이다. 영화촬영이 끝나고 나서는 완전 철거했으며 그 위에 새로 잔디를 깔았다. 반지의 제왕 제작진의 보살핌과 관심에 대한 경의의 표시인 것이다.

하코트공원(Harcourt Park)－*오르크 나무(the Orc Tree)*

하코트공원은 서로 이어 붙인 *이젠가드* 나무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사루만*의 본거지를 제작하는 동안 촬영용

으로 쓰일 많은 나무들을 잘라서 *사루만*의 용광로에 불을 때는 데 쓰였다. 하지만 여러 차례 이런 장면을 찍어야 했기 때문에 세트제작자는 새로운 방법을 택했다. 우선 200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나무 두 그루를 베어서 운반(뿌리를 포함한 나무 전체)해 오도록 했으며 하나하나 셀 수 있게 가지단위로 잘라 나중에 다시 갖다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나무를 심을 자리에 구멍 2개를 파서 쇠기둥을 땅속에 박아놓고 가지들을 그 옆에 다시 갖다 붙이고 나자 쇠기둥 옆에 자라듯이 '달라붙어' 감쪽같았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나무를 자르고 갖다 붙이고를 반복하면서 다른 각도에서 영화촬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나무에 잎사귀가 많이 달려있지 않아서 한 팀은 2주 동안 플라스틱 잎을 나무에 연결하면서 보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빗속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나무들은 신호에 따라 넘어가고(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고) 한 주 동안의 촬영 끝에 멋진 장면을 담을 수 있었다. 그러고 나서 디지털합성을 통해 악의 소굴 *이젠가드*를 담아낼 수 있었다. 나무들은 촬영이 끝나고 나서 제거되었다.

반지의 제왕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하코트 공원은 뉴질랜드에서 형성된 지진단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 중의 하나이다. 웰링턴단층이 공원을 관통하고 있으며 19세기에는 대지진이 이 지역을 뒤흔들어놓아 지면이 5미터정도 융기하고 허트강 경로를 바꿔놓기도 했다. 단층위치는 공원 내 표지판에 나와 있으며 지질학 학생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가 볼만하다.

허트강(Hutt River)－*안두인강, 로한강(River Anduin and Rohan River)*

허트강은 타라루아 능선 서쪽지점(Sourthern Tararua Ranges)에 있는 수원에서부터 약 30킬로 지점까지 흘러내리는데 덤불과 농지, 도시를 지나 마지막으로 페톤(Peton)에 있는 바다로 이르게 된다. 200만년에 걸쳐 웰링턴단층을 비롯한

지각변동에 의해 강이 형성되었으며 지반은 부서지고 약해져서 거대한 범람원을 형성했다. 강은 마오이족과 유럽 정착민들에게 중요한 운송수단이었으며 육로는 둑을 따라 수십 킬로까지 뻗어 있어 리무타가언덕(Rimutaka Hill)에서 웨이라라파(Wairarapa)로 연결된다. 이전에 식생이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취를 둑 여러 곳에서 발견 할 수 있으며 천혜의 자연으로 인해 웰링턴스튜디오 근처에 있는 *안두인강*이 촬영지로 선정되었다.

소규모 촬영장면은 북쪽에 있는 카이토케에서 이루어졌지만 대부분의 촬영은 문샤인(Moonshine)과 토토라공원(Totora Park)사이에서 이루어졌다. SH2번 국도에서 빠져나오면 *안두인강*에 갈 수 있다. 문샤인 다리를 지나고 나서 시인의 공원(Poet's Park)을 막 지나서 왼쪽 진입로를 찾아보자. 이곳에서 조그만 엘프의 배를 수 차례 강에 띄웠으며 이 고장 출신 여행자들이 근처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이 강을 따라가는 또 다른 좋은 방법으로 남쪽에 있는 페톤(Petone)에서부터 시작해 24킬로 정도 지나 어퍼헛에서 끝나는 허트강 트레일(Hutt River Trail) 일부나 전체구간을 여행해 볼 수도 있다. 문샤인 다리에 진입로가 있어 둑에서 토토라공원을 따라 잠깐 산책할 수도 있다.

허트강 다른 지점에서는 *아라곤*이 *로한*에서 *와르그*와의 대치이후 강기슭으로 떠밀려오는 장면을 촬영했다. 여기에 가려면 어퍼헛 북쪽에서 약 2킬로 떨어진 곳에 있는 주요고속도로(SH2)에서 왼쪽으로 빠져 토파즈가(Topaz Street)로 가면 된다. 그리고 다음 교차로에서 우회전해서 젬스톤도로(Gemstone Drive)를 타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짧은 진입로를 통해서 강으로 갈 수 있는 일반진입로가 나온다.

웰링턴(Wellington)－일일관광

웰링턴 안팎 지역은 하루정도면 쉽게 둘러볼 수 있으며 보

면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장면은 물론 다양한 지형을 볼 수 있다. 지도를 들고 일찍 나서서 우선 켄트 테라스(Kent Terrace)가지 차를 타고 간 후 엠버시 영화관(Embassy Theatre)에 가 보자. 여기서 '반지원정대'와 '두개의 탑' 호주 시사회가 열렸다. 파이리가(Pirie Street)로 계속 가다가 버스 터널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차를 세워서 울창한 빅토리아산 부락으로 들어가면 *샤이어*와 *항구로 가는 장면*을 촬영한 지역 외곽을 둘러볼 수 있다.

먹을 것도 챙기면서 마을에서 가장 맛있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싶으면 초콜렛 물고기 까페(Chocolate Fish Cafe)에 가 보자. 음식도 다 챙겼으면 웰링턴시로 돌아와 고속도로(SH2)를 타고 카이토크 지방공원과 *리븐델*이 있는 곳으로 가자.

길 아래쪽으로 가면 어퍼헛에 위치한 하코트공원이 나오며 2000년에 *이젠가드 정원*으로 사용했다. 나무, 정원, 피크닉 장소도 많으며 그 '이어 붙인' 유명한 *이젠가드*의 나무도 볼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샤인 다리에서부터 시인의 공원까지 이어져 있는 허트강 부근에서는 1편 '반지원정대'에서 나오는 *안두인강*을 클로즈업 촬영했으며 웰링턴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헤이우드언덕(Haywood Hill) 밑에 있는 드라이크리크 채석장(Dry Creek Quarry)에서 잠깐 멈춰서 *헬름 협곡*과 *미나스티리스* 세트장도 볼 수 있다.

페더스톤가에 있는 루벤(Leuven)에서 저녁식사를 하면 아무리 허기진 사람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으며 그리고 나서 엠버시 영화관으로 가면 좋아하는 영화를 보며 하루 동안의 모험과 발견을 마무리할 수 있다. 웰링턴은 운송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어 버스나 기차로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간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웰링턴(Wellington)-카페 및 즐길 거리

웰링턴에서 장기 체류하는 동안 제작진은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다. 스코칭만(Scorching Bay)에 있는 초콜렛 물고기 카페에 가보면 왜 여기가 제작진이 즐겨 찾는 장소 가운데 하나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촬영기간 동안 제작진들이 머물렀던 시톤(Seatoun)과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이 카페는 최고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약간 독특한 식당이다. 시내 중심가가 식당 중앙을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레스토랑이기 때문이다. 조그마한 집 규모의 이 카페 안과 밖에 테이블이 있는데 도로의 맞은편 바닷가 바로 옆자리가 가장 좋다. 야광 데이글로 조끼를 입은 점원들은 길을 가로지르며 식당 맞은편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음식과 거피를 갖다 준다.

페더스톤가 루벤(Leuven)에 있는 다운타운(Down)바는 벨기에 일부를 이곳에 옮겨놓은 듯한 분위기를 준다. 일주일 내내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문을 여는 이곳은 금요일 밤이면 직장인들이 즐겨 찾는다. 온갖 종류의 벨기에 요리가 제공되며 최고의 맛을 자랑하는 벨기에맥주를 곁들이면서 즐길 수도 있다.

그 외에 리브 타일러(Liv Tyler)와 일라이저 우드(Elijah Wood)가 즐겨 찾던 나이트클럽으로 브라바(Brava)와 스튜디오9(Studio 9)이 있다. 숀 빈(Sean Bean)은 몰리 말로네(Molly Malone)를 자주 드나들었고 비고 모르텐슨(Viggo Mortensen)은 그랜패럿식당(Green Parrot)식당에서 스테이크와 감자튀김을 즐겨 먹었다.

뉴질랜드 패션도 뉴질랜드를 알리는 데 제몫을 했다. 리브 타일러와 일라이저 우드는 최고의 뉴질랜드 패션브랜드인 잠베시(Zambesi)옷을 입고 국제패션잡지에 게재할 사진도 찍었다. 리브 타일러의 경우 스타피쉬(Starfish)라는 패션디자인 가게

에서도 쇼핑을 했다.

*호빗*들은 웰링턴 공항 근처에 있는 리알 만에서 또 다른 휴식거리를 찾았다. 처음에는 한명이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서핑을 시도했다. 몇 시간이 지나자 4명 모두 파도타기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세트장(The sets)-*브리(Bree)*

시톤 교외에 있는 도세트 요새(Fort Dorset)에서도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이 오랜된 군사기지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남아있는 세트는 없지만 기지 전경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번함가(Burnham Street) 끝으로 가서 해변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고도 잘 볼 수 있다.

**브리마을은 이리아도어 중심부에 있는 동쪽길과 북쪽길 교차로 근처에 있다. 호빗과 인간이 즐겨 찾는 프랜싱포니 여관은 매일 밤 선술집을 드나들면서 가십거리와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들과 여행객들의 지역생활의 중심지가 되었다. 호비튼에서 이틀에 걸쳐 차를 타고 가면 도착하는 이곳은 호빗들이 고향에서 도망쳐오면서 하룻밤 묵는 장소가 되었다.*

**우리가 방대한 영화를 제작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피터잭슨 감독의 뒷마당에서 이 모든 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물론 뒷마당은 뉴질랜드를 말하는 거죠. 뉴질랜드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영화를 성공적으로 제작하는데 필요한 인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안 맥켈런(Ian McKellen: 간달프역)*

세트장- *헬름협곡(Helm's Deep)*

세트장은 완전히 철거되었지만 궁금한 사람들은 웨스턴허트 도로(Western Hutt Road)를 이용해 헤이워드힐도로(Haywards Hill Road)를 타고가면 된다. 채석장은 언덕 바로 아래에 있으며 일반인의 출입은 금지되어있다.

**헬름협곡 요새는 디핑콤 꼭대기에 있는 백색산 북쪽에 있다. 곤도르가 요새를 축성했지만 나중에는 로한이 점거하고 전시 피난처로 사용되었다. 혼버그탑, 헬름문, 디핑월, 디핑탑은 언덕 뒤쪽으로 연결되는 여러 개의 동굴로 이루어진 아글라론드를 방어하는 주요 성채였다. 빛나는 동굴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헬름협곡 전투를 치르는 동안 은신처로 사용되었다.*

**웰링턴에게 축복을! 거긴 너무 좋은 곳이에요. 뉴질랜드에 제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제 인생의 1년하고도 절반을 거기서 보냈죠. -일라이저 우드(Elijah Wood:프로도역)*

세트장- *미나스 티리스(Minas Tirith)*

미나스 티리스 세트장도 헤이워드힐 도로(Haywards Hill Road)근처 채석장에서 제작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건 없고 채석장은 다시 문을 열었다.

**제2시대 말기에 지어진 미나스 아노르(신다르어로 노을진 태양의 탑)와 미나스 이딜(신다르어로 떠오르는 달의 탑) 두개 탑은 곤도르인이 초기에 건설한 건축물이었다. 미나스 이딜이 나즈굴에 빼앗기고 나서 미나스 모르굴(신다르어로 마법의 탑)로 이름이 바뀐 후 언제나 오스길리아스를 향해 마주하고 있는 도시 이름을 미나스 티리스(방어의 탑)로 바꾸었다. 말*

그대로 민돌루인산 한편에 지은 미나스 티리스는 7층짜리 원형 벽으로 지었다. 커다란 교대(배의 이물처럼)에는 아나리온 대성당과 분수가 세워져 있고 펠렌노르 평원에서 700피트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넬슨(Nelson)-소개

온난한 지중해성 기후대에 위치한 넬슨은 아름다운 해변과 관목으로 뒤덮인 산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공예, 요리, 와인제조의 중심지로 변모했다. 세개의 국립공원이 있는 이곳에는 하이킹, 산책, 요트, 맛집 탐방을 위해 연중 내내 찾는 사람들로 붐빈다.

넬슨은 처음에 라 카이 하우 투(Ra Kai Hau Tu)가 이곳을 화카투(Whakatu)라고 이름 붙였다가 수년이 지나 포헤아(Pohea)가 항구 가장자리에 마탕기 와히오 파(Matangi Awhio Pa)를 세웠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유럽정착민들이 빅토리아 시대 영국풍의 건물을 직접 제작했는데 오늘날 까지도 거리에 하디(Hardy), 브론테(Bronte), 해븐(Haven), 웨이크필드(Wakefield)라는 이름의 오래된 별장이 남아있어 그러한 영향을 실감할 수 있다.

세 개의 국립공원은 별 어려움 없이 갈 수 있으며 다양한 풍광을 보여준다. 아벨 태즈먼 국립공원(Abel Tasman National Park)은 뉴질랜드의 유일한 해안공원이다. 아름다운 황금빛 모래사장이 특징인 이곳에서는 해상 카누, 항해, 유람, 산책 등 다채로운 해양체험을 즐길 수 있다.

넬슨호 국립공원은 좀 더 지세가 험하며 남알프스산의 최북단 봉우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공원에는 거대한 산정호수가 두 군데 있으며 덤불과 고산 산책로, 호스트랙(말을 타고 여행하는 도로)이 있는 것은 물론 고기잡이도 할 수 있다. 겨울철 관광객들은 레인보우골짜기(Rainbow Valley)에서 스키를 타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스키관광과 고산등산도 할 수 있다.

뉴질랜드에서 2번째로 가장 큰 카후랑기 국립공원은 남섬 북서쪽에서 가장 큰 자연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따로 떨어진 3개 공원에서 촬영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수공인들이 만든 특별소품도 사용되었다. 제작진들은 특히 이곳에서 전원풍의 해변과 고요한 바다를 한껏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넬슨(Nelson)-공예장인

300명에 달하는 장인들이 이곳에 있는 까닭에 *반지의 제왕* 소품부가 여기서 소품을 구하려했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소품부는 리치몬드(Richmond)에 있는 해링턴양조장(Harrington Brewers)에 *호비튼*과 *프랜싱포니*에 쓸 특별한 맥주를 제조해달라는 부탁을 했다. 이들은 제작진이 해링턴 스타우트(Harrington's Stout)에 자리 잡기 전까지 여러 차례 맥주를 시음해보았다. 풍부한 맛의 흑맥주는 구운 맥아와 특별한 효모를 섞으면서 흑맥주만의 특색을 띠게 된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양조업자는 알코올 함유량이 1.1퍼센트 이상을 넘지 않도록 맥주를 제조해야했다. 맥주의 맛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수가 조금만 높아도 제 맛이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그 결과 빛깔 좋고 깔끔한 맛의 에일 맥주가 만들어졌고 영화 촬영 시 2만 리터가 제공되었다. 양조장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맥주 맛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해링턴 스타우트에 가서 알코올 5퍼센트가 첨가된 맥주를 살 수 있다.

넬슨 세계 의류축제(Nelson World of Wearable Art Extravaganza)에서는 해마다 한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 독특한 예술작품을 선보인다. 완성품의 디자인이 보기에 이상할 때가 있다고 해도 그 나름대로 독특함을 유지하면서 직접 입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을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류 및 소장용 자동차 세계(The World of Wearable Art and Collectable Cars)가게는 넬슨 공항 부근에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기발한 패션제품을 선보이는데 이곳에 있는 예술가 대다수가 '반지의 제왕' 의상을 제작했다.

젠스 핸슨 금은세공사(Jens Hansen Gold and Silversmith)는 넬슨 중앙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Trafalgar Square) 오목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곳에서 선보인 여러 작품 중에서 한 보석세공인의 작품이 다른 작품들을 무색하게 했다. 제작자가 젠스에게 *절대반지* 디자인을 맡기자 젠스는 직경 16센티에 거의 비슷한 크기의 금고리 반지 40개를 제작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아쉽게도 젠스는 영화 속에서 나오는 자신의 작품을 보지도 못하고 1999년에 사망했지만 아들인 토킬드(Thorkild)가 계속해서 가족의 전통을 이어나갔다. 현재 이 곳에서 원본 반지를 전시하고 있으며 토킬드가 직접 순금 9캐럿과 18캐럿짜리 절대반지를 똑같이 세공해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타카카언덕(Takaka Hill)－*쳇우드 숲(Chetwood Forest)*

차로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이 곳은 오염되지 않은 해변과 멋진 산 경치,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구멍이 있는 곳이다. 무성한 과수원지를 지나고 나서 마푸아(Mapua)에서 멈춰 염수 수족관에 들러보자. 도로 맞은편에 있는 식당은 풍부한 맛의 커피와 맛있는 훈제고기요리를 제공하며 쳇우드 숲에서 점심으로 먹을 신선한 빵도 구입할 수 있다.

모투에카(Motueka)를 지나 카이터리테리(Kaiteriteri) 해변의 금빛 모래사장을 지나면 972미터 높이의 타카카언덕(Takaka Hill)에 오르게 되는데 이 곳에는 바위투성이의 대리석암이 툭 튀어나와 있으며 지구상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돌을 볼 수 있는 곳은 이탈리아밖에는 없다.

응가루아동굴(Ngarua Caves)이라고 씌어진 표지판을 바로 지나고 나서 도로 오른쪽에 포장이 안 된 칸란도로(Canaan Road)가 나오는지 확인해보자. 이 도로를 따라 가면 세월의 풍파에 씻겨나간 대리석경사면을 배경으로 유령이 나올 듯한 음산한 숲을 지나게 된다. 주요 도로에서 8킬로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소가 못 지나가게 막아놓은 문을 지나서 차를 세우자. 바로 오른쪽 편에 간이음식을 파는 천막이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으며 조금만 더 지나면 나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아라곤*이 *브리*를 떠나면서 *호빗*들을 황야로 데리고 지나간 곳이다. *호빗들*이 *샤이어*를 떠나는 장면도 여기서 촬영했다.
힘이 넘치는 사람들의 경우 2시간에 걸쳐서 돌아가는 길을 따라 가면 하와드 홀(Haward's Hole)로 가게 된다. 깊이 176미터, 너비 15미터의 지호가 석회암 지형 안에 있는데 세계에서 12번째로 크고 남반구에서는 최대크기를 자랑한다. 주의사항: 근처 지역에 세워진 표지판을 따라 가야한다. 표지판이 세워지지 않은 지호 중에는 *모리아*의 심연과 맞먹을 정도로 깊은 곳도 있다.

주요도로로 다시 돌아와 타카카 언덕 정상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금빛해변과 태즈먼 해변 경치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내리막언덕으로 이어져 아벨 태즈먼 국립공원으로 갈 수 있다. 근처에 멋진 장소들이 많아서 하루 밤 머물고 싶은 생각도 들 것이다.

올림푸스산(Mt Olympus)－*리븐델 남쪽(south of Rivendell)*

'*반지원정대*'에서 나왔던 가장 멋진 두 장면을 카후랑기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올림푸스 산 옆에 있는데 넬슨 헬리콥터(Nelson Helicopter)조종사인 벨 레이드(Bill Reid)가 아니었으면 전혀 발견하지 못할 뻔했다. 타카카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동안 빌은 *리븐델* 남쪽인 험준한 지대 일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를 이상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한 지역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몇 개월이 지나서 눈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촬영이 불가능해지자 이곳에서 *원정대*가 *사루만*의 *크레빈*(*던랜드*에서 온 검은 까마귀)떼의 눈을 피해 숨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 지역은 후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경관이 뛰어난 반면 너무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여행객들은 넬슨 헬리콥터를 타고 가야 도착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영화촬영 내내 제작진들에게 상당한 물자지원을 제공했으며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을 베이스캠프에서 절벽꼭대기에 있는 촬영장소까지 날라다 주었다. 지역 내 헬기관광 서비스도 제공하며 쳇우드숲, 올림푸스산, 오웬산 위를 날아가면서 특별한 *'반지의제왕'* 촬영지를 감상할 수 있다. 꼭 이용해 볼 것을 권한다.

올림푸스산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산이다. 바위투성이의 돌출부는 산 경사면에서 툭 튀어나와 마치 신이 바위에 마법을 걸어 화를 내는 듯한 지세로 돌로 만든 듯한 인상을 준다. 세월이 지나면서 물이 부드러운 바위를 침식해 더욱 단단한 형태를 드러내었으며 거기서 다시 뒤틀어지고 금이 갈라져 마침내 비상한 기둥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산 아래로 구름이 뒤덮일 때가 있는데 우뚝 솟은 기둥은 하늘에 맞서듯 솟구쳐 있어 올림푸스산의 신화적 효과를 더해주고 있다.

**원정대가 바위 위에서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동안 메리와 피핀은 보로미르와 칼싸움연습을 했다. 그때 레골라스의 예리한 눈이 크레빈이 접근하는 걸 눈치채고 서둘러 불을 껐으며 원정대는 들키지 않게 숨었다.*

오웬산(Mt Owen)－*딤릴 데일(Dimrill Dale)*

1800미터 높이의 오웬산은 카후랑기 국립공원 남쪽 끝단에 있는 머치슨(Murchison)근방에 자리 잡고 있다. 공원에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바위도 있으며 이곳에서 발견되는 지질 특성은 고대의 대륙인 곤드와나 랜드(Gondwanaland)와 이

어준다.

헬기가 오웬산의 동쪽 경사면을 지나면서 하얀 달처럼 얼음으로 뒤덮인 대리석 카르스트지형이 나타나며 좀 더 가까이 가면 바위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낸다. 언뜻 보기에 평평한 지형은 사이마다 깊은 틈이 나 있으며 주름이 진 트롤얼굴처럼 깊은 지호가 여기저기에 흩뜨려져있어서 진정으로 자연의 위대한 힘을 보여준다. 물이 수백만 년에 걸쳐 부드러운 석회석 표면위로 떨어지면서 방대한 지하수체계를 형성했고 그 결과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동굴지형이 형성되었다.

이 지역을 직접 구경하게 되면 '반지의 제왕'을 촬영하는데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에 정면으로 노출된 제작진과 배우들은 10일 동안 헬기로 이곳에 와서 영화촬영을 끝냈고 그 결과는 가히 놀라울 정도였다.

기진맥진한 *원정대*가 *모리아*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이곳에 나무계단을 만들었으며 *모리아*의 동쪽 문도 컴퓨터그래픽으로 첨가했다. 오웬산의 빛 바랜 월면으로 인해 *반지원정대*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가 빛을 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소물색에 수고한 지역 답사팀에게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 지역을 도보여행(트램핑)으로 둘러볼 수도 있지만 노련한 등산가가 아니면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깐 뒷좌석에 앉아 편히 쉬면서 마법의 헬기관광을 즐기자.

남알프스산(The Southern Alps)－*안개산맥(The Mistry Mountains)*

남알프스산은 남섬에 있는 산맥을 형성하고 있다. 북쪽 블렌헤인(Blenhein)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피오르드 랜드까지 550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알프스산은 3000미터에 걸쳐 남섬에 있는 모든 공원을 포함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지각판과 태평양 지각판 사이에 걸쳐있는

알프스산맥은 수직수평운동을 일으키며 계속 활동 중이다. 폭우와 기타 요인들로 의한 침식작용 때문에 산맥은 어느 정도 안정된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알프스산맥은 남섬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편서풍이 주로 두 개의 뚜렷한 기후대를 형성한다. 편서풍은 웨스트코스트(West Coast)에 폭우를 유발하지만 알프스산맥을 지나면 습기가 떨어지면서 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뜨겁고 건조한 푄바람이 캔터베리 지역과 오타고 지역에 발생하며 보통 북서풍이라고 불린다. 특히 주요 분기점을 지날 때 그러한 기후변화가 뚜렷이 드러난다. 이곳은 알프스산맥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덤불과 동갈색풀이 우거져있다.

산의 고도는 물론이고 이 곳에 미치는 기후영향이 유사했기 때문에 알프스산맥이 *안개산맥*을 제대로 묘사하기 위한 확실한 선택이었던 것이다.

일반장소들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네 군데도 반지의 제왕 3부작 촬영장소로 나왔다. 글레노치 근처에 있는 언슬로산(Mt Earnslaw)북서쪽비탈은 *카라드라스*(*신다르*어로 *레드혼*이라는 뜻)로 나왔으며 여기서 *원정대*가 *레드혼길목*을 통해 *안개산맥*을 지나려는 장면을 촬영했다. 랑지타타지역(Rangitata Region)에 있는 알프스산맥에서는 *프로도*가 *절대반지*를 떨어뜨리자 *보로미르*가 줍는 장면을 촬영했다.

와나카(Wanaka)근처에 있는 에스파이어링산(Mt Aspiring)은 2편 '두 개의 탑'의 멋진 오프닝장면에서 *모리아* 주변에 걸쳐진 높은 봉우리로 나왔으며 동 마투키투키(East Matukituki)에서는 *원정대*가 한 줄로 눈 속을 헤쳐 나가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 두 개 산은 헬리웍스(Heliworks)가 제공하는 중간계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헬기를 타고 갈 수 있다.(93 페이지 참고)

**안개산맥은 제1시대에 형성되었다. 900마일까지 뻗어있는 이 산맥은 중간계에서 가장 큰 봉우리인 메테드라스(이젠가드근*

처), 카라드라스(모리아근처), 지락지길(간달프가 발로그를 쓰러트린 곳)을 포함하고 있다. 편서풍에 의해 형성된 구름과 기상조건으로 인해 안개산맥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에레혼(Erewhon)-소개

"그 풍광이 주던 완전한 적막감을 나는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여기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농가만이 인간의 발길이 닿아 있음을 보여줄 뿐, 이곳의 평원, 강과 하늘은 방대하기 이를 데 없다. 이 모든 게 경이로운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검은 산이 하얀 하늘을 마주보다가 다시 추운 날이 되면 하얀 산이 검은 하늘을 마주보는 멋진 분위기 효과가 있다"고 사무엘 버틀러(Samuel Butler)는 자신의 고전 '에레혼'에서 이와 같이 적고 있다. 이곳은 험준한 산세를 제대로 보여주는 곳으로 11개월 동안 *로한*의 수도 *에도라스*가 되었다. 거대한 산골짜기에 위치한 금빛 덤불지인 에레혼은 경사진 고산봉우리가 들쑥날쑥한 배경을 제공하면서 적막한 경관을 보여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메트번(Methven)이 여기서 가장 가까운데 켄터베리평원(Canterbury Plain) 가장자리에서 북동쪽으로 85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여름이 되면 뜨거운 북서풍으로 인한 30도 열기가 도시를 감싸는데 근처 강가에서 제트보트를 타거나 그늘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주민들의 휴식처가 된다. 겨울철이 되면 스키이용객들이 대부분의 숙박시설을 가득 메우며 주변 술집과 뉴질랜드에서 가장 멋진 스키장인 허트산 근처 스키장을 들락날락거린다. 배우들과 제작진은 촬영하는 동안 이곳에 머물며 지역주민들의 환대를 받았다.

메트벤을 뒤로하고 나서 길은 널따란 평원 전체에 펼쳐져 있는 남알프스산을 따라 솜머산(Mt Sommers)까지 죽 이어진다. 선데이산(*에도라스*)으로 가는 길은 날씨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는 전원적이면서 확 트인 지대를 거치게 된다. 고산지대가

있다는 것은 그 지대가 급격한 날씨와 기온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안내센터와 주유소에 가면 유용한 정보지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우회전하면 비포장도로가 에쉬버톤 협곡(Ashburton Gorge)을 가로지르며 투명한 숭어가 가득한 캠프호(Lake Camp)와 클리어워터호(Clearwater)주변을 지나게 된다. 그러고 나서 에레혼이 모습을 드러내는데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여러분의 혼을 쏙 빼놓을 것이다.

포츠산 농장(Mt Potts Station)－*에도라스(Edoras)*

광대한 남알프스산 높은 곳에서 나온 랑지타타강은 눈이 쌓여 형성된 지류에 의해 생겨났으며 우뚝 솟은 산으로 거의 둘러싸이다시피 한 깊은 골짜기가 연결되면서 선상지를 형성한다. 강 유역 내에 오래전에 있었던 빙하로 인해 마지막으로 남은 모래 벌퇴석은 선상지에서 뻗어 나온 듯한 암반 돌출부를 형성했다. 이중 선데이산에서 톨킨이 묘사한 전설의 말과 용맹한 전사의 땅 *로한*의 수도인 *에도라스*와 *세오덴왕*의 왕실인 *메두셀드*를 화면에 담았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랑지타타 골짜기에 들어오면 선데이산이 바로 앞에 보이는데 갈색 덤불과 여러 갈래로 갈린 강줄기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산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지만 포트산 농장 입구를 거쳐 가는 비포장도로를 타고 갈 때 경치를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정교한 세트장 가운데 하나인 *에도라스*는 11개월에 걸쳐 완성되었으며 주말에 쌍안경과 카메라를 들고 와 웅대한 건축물의 윤곽을 확인하려는 많은 방문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 대담한 신문기자는 경비행기를 빌려 *에도라스* 위를 날아다니면서 사진 기사를 작성했으며 이 사진은 전 세계로 퍼졌다.

포트산은 면적이 2700헥타르에 달하는 고지대이며 해발 500미터에서 2300미터까지 고저차가 다양하다. 지대의 70퍼센트 가량이 여름에 양을 방목하는 고원지대이며 건강한 뉴질

랜드 산 메리노양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산지대에 있는 고산 숙박지나 오두막에서 숙박하게 되면 하루 동안의 등산이나 낚시, 아니면 한가로이 독서를 끝낸 후 숙박지에서 직접 제공하는 맛있는 식사와 함께 고지대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접할 수 있다.

**에도라스(왕실)는 로한의 수도이며 방 여러 개가 왕의 방인 메두셀드가 있는 중앙홀을 감싸고 있다. 메두셀드의 지붕과 기둥은 순금으로 덮여 있으며 에도라스의 금홀로도 알려져 있다. 2569(TA)년에 완성된 이곳은 스노우번강 근처 백색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다.*

맥켄지군(The Mackenzie Country)-소개

670미터에 걸쳐 북쪽 페어라이(Fairlie)에서 맥켄지 분지까지 나 있는 버키스 도로(Burkes Pass)을 지나다보면 주변이 어느 샌가 잘 정비된 농지에서 갈색덤불지대로 바뀌는 걸 알 수 있다. 이 분지 내에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아오라키산/쿡산 3762.9m)과 가장 긴 빙하(태즈먼빙하)가 있는데 갈색바다처럼 알프스산을 덮는 평평한 초원과는 극단적인 대비를 보여준다.

이 지역은 1800년대 중반에 훔친 양떼를 보유했다는 의심을 받았던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인인 제임스 맥켄지(James Mackenzie)의 이름을 땄다. 그의 유죄와 탈옥, 그리고 이후에 내려진 사면이야기는 이 지방 전설로 남아 있다.

덤불초원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가면 우윳빛 청록색을 띤 테카포 호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보는 이들의 입을 쩍 벌어지게 한다. 호수 아래에 퇴적된 빙하석에 의해 색깔이 이렇게 된 것이다. 강가에는 선한 목자의 교회(Church of the Good Shepherd)라는 작은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가 볼 만하

며 교회 안에 있는 설교단위에서 바라보는 호수와 산은 사진 찍기에 제격이다.
근처 공항에서 알프스산 위로 비행하는 헬기관광도 할 수 있으며 마을에 다양한 숙박시설과 식당이 있다.

테카포를 뒤로하고 나서 길이 푸카키 호수 방향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뉴질랜드 최대의 수력전기발전소를 짓기 위해 30년에 걸쳐 조성한 인공운하를 지나게 된다. 자연호수 세 곳과 인공호 두 곳을 이용하는 어퍼 와이타키(Upper Waitaki)발전소는 매우 중요한 전력원이다.

한 운하 옆에서부터 관광도로가 시작되는데 테카포에서 10분 거리에 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연어농장(신선한 물고기를 공급하는 가게와 함께)을 지나게 되며 쿡산의 멋진 풍광도 감상할 수 있다.

이 길은 푸카키 호수옆에 있는 주요 도로와 다시 합쳐지는데 푸카키 호수도 덤불로 둘러싸인 또 하나의 보석 같은 호수이다. 이다. 차를 타고 10분 정도 더 가다 보면 쿡산 분기점에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길이 곧바로 트와이젤 마을과 초지인 *펠렌노르 평원*으로 이어진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쿡산(Mt Cook), 트와이젤(Twizel)

트와이젤을 방문하기 전에 고산마을인 허미티지(The Hermitage)로 차를 몰고 가 보자. 이 곳은 테카포에서 106킬로 거리에 있으며 쿡산 국립공원에 있는 남알프스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다.

쿡산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둘러싸여 있다. 마오리족이 아오라키(Aoraki:하늘에 떠 있는 구름)라고 이름 붙인 이곳은 1894년 크리스마스 날 기독교신자 3명이 최초로 등반한 곳이다. 비탈이 가파르기 때문에 지금도 험난한 등반코스를 제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린 뉴질랜드 출신 등

반가인 에드문드 힐러리(Edmund Hillary)가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기 전에 훈련하던 곳이기도 하다.

허미티지에서부터는 멋진 풍광을 자랑하는 고산산책길이 몇 군데 있다. 근처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헬리스키 관광이 백미인데 산 위를 비행하다가 정상에서부터 태즈먼 빙하의 만년설 위로 스키를 타며 내려오는 코스이다. 시간이 있다면 후커 플랫(Hooker Flats)을 통해 가는 산책로가 그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다. 제대로 정비된 도로주변에 나 있는 덤불을 따라 세프톤 개울(Sefton Stream)로 가는데 4시간이 걸리며 이곳에서 후커빙하(Hooker's Glacier)바닥에 깔린 빙퇴석면을 볼 수 있다.

*안개산맥*이 허미티지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멋진 곳에서 머무는 것은 그야말로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근처 글렌태너공원(Glentanner Park)에도 숙박시설이 있으며 하룻밤 묵고 싶지 않으면 다시 트와이젤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노덤버랜드(Northumberland)에 있는 트와이젤 다리의 이름을 딴 이 마을은 어퍼 와이타키 발전소를 짓기 위해 1970년대 이 지역으로 이주해 온 수천 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 발전소가 지어진 후 대부분 이곳을 떠났지만 근처에 오하우 호수(Lake Ohau)와 스키장이 있어서 지금은 인기 있는 주말휴양지가 되었다. 가까운 곳에 루아타니화 호수(Lake Ruataniwha)라는 인공호가 있으며 무지개송어와 갈색송어를 볼 수 있다.

남알프스산 기슭에 자리잡은 이 곳은 겨울이 되면 지역전체가 눈으로 뒤덮이며 여름에는 30도에 육박하는 열기를 동반한 뜨거운 북서풍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극심한 곳 중 하나이다.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으며 마을에는 식당 이외에 시설이 잘 갖추어진 야영장과 농장 홈스테이도 많이 있다.

트와이젤(Twizel)－*펠렌노르평원(Pelennor Fields)*

'반지의 제왕'에서 최대 전투장면은 *펠렌노르 평원의 전투*라고 할 수 있다. 트와이젤 주변 지역은 이 모든 걸 충족시켜주었다. *에레드 님라이스*(눈으로 뒤덮인 산지), 초지, 외곽지(인가가 없는 지역), 그리고 근처 마을은 필요한 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을 제공해 주었다.

마을 대부분을 화면에 담았는데 이곳에서는 1개월 동안 매일 밤 전투병(얼굴에 남은 메이크업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들이 마을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 날 있었던 공격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트와이젤에서 *펠렌노르 평원* 촬영지 관광을 할 수 있으며 마을에 있는 방문객안내센터에서 예약할 수 있다. 촬영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이 방법으로만 갈 수 있다. 하지만 이 관광코스는 단순히 몇 개 언덕만 구경하는 코스가 아니다.

가이드는 *로한인*이나 *곤도르의 기마병*, 심지어는 악독한 *오르크*일수도 있다. 또한 대전투신에서 200마리의 말을 카메라에 담는 게 얼마나 까다로웠는지에 대해 설명해줄 뿐 아니라 고지대농업과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유익하고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이 관광코스는 적극 추천한다.

웨스트코스트(The West Coast)－소개

남섬의 웨스트 코스트는 초록빛 덤불과 깊고 푸른 호수, 맑은 개울과 눈 덮인 봉우리 일색인 지대이다. 동쪽지역보다 훨씬 많은 강수량을 보이는 이곳은 이 때문에 나무와 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는 지역이 되었다.

뉴질랜드인 사이에서는 단순히 '해안'라고 알려진 이 곳은 남알프스산과 태즈먼해 사이에 놓여 있으며 1800년대 중반에는 광부들이 여기로 내려와 강 여러 군데에서 매장량이 풍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 충적사금을 채취했기 때문에 무법천지였다.

오늘날에는 관광이 주요사업이 되었으며 하스트(Haast) 남쪽에서 웨스트포트(Westport)까지 400킬로에 걸쳐 뻗어 있는 웨스트 코스트 도로는 *에도라스*를 경유해서 남쪽에서 내려와 동쪽해안으로 가려는 이들에게 북쪽으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경로를 제공해준다.

와나카 호수를 등지고 나서부터 길은 해위호수(Lake Hawea)주변을 지나 563.9미터 길이의 오르막길인 하스트도로(Haast Pass)로 연결되어 해안마을인 하스트에 이르게 된다. 이 조그만 마을은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 하기에 매우 좋은 곳이며 이곳에 있는 환경보전부 본부는 이 지역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안내도를 비치하고 있다.

북쪽으로 더 가다보면 나오는 파링가 호수(Lake Paringa) 부근에 연어농장과 '연어뷔페'를 제공하는 식당이 있는데 이곳도 사람들이 자주 즐겨 찾는 장소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도로는 북쪽으로 나아가면서 토종나무들과 덤불사이를 가로지르며 폭스빙하(Fox Glacier)마을에 도착할 때면 남알프스산의 빼어난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환경보전부 안내센터에서 빙하가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도로정보와 직접 걸어서 갈 수 있는 산책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쿡새들(Cook Saddle)에서 프란cm 조세프 빙하(Franz Josef Glacier)에 이르는 20킬로 구간부터는 도로가 굽어진다.

프란츠 조세프 빙하(Franz Josef Glacier)-*봉화의 점화*

피터잭슨 감독이 *봉화의 점화*장면을 촬영할 장소를 물색할 당시 처음에는 퀸즈타운 근처에 있는 산꼭대기로 정했다. 불행히도, 촬영은 여름 중순에 센트럴 오타고에서 하기로 예정되었고 마침 이 지역 일대 산불금지 기간과 겹치게 되었다. 그래서 웨스트코스트를 돌아다니다가 군산(Mt Guun)을 찍은 사진을

보고 즉시 그곳에서 촬영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예정한 곳보다 훨씬 나았음이 입증되었다.

진입로를 따라 차를 몰고 가면 숲을 지나 빙하지대의 하단 부분을 감상할 수 있는데 빙하를 따라 덤불이 나 있는 아래지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북극지방 외에서 보기 힘든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헬기를 타고 가면 군산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지역항공사인 폭스와 프란츠 헬리서비스(Franz Heliservices)가 이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모든 걸 했으며 모든 지역을 샅샅이 꿰고 있었다. 프란츠 조세프 빙하와 폭스 빙하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이들 회사는 빙하 위 착륙을 포함한 헬기관광뿐만 아니라 가이드투어도 제공한다.

**에레드 님라이스(신다르어로 '백색산'이라는 뜻)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곤도르와 로한을 가로지른다. 동쪽정사면에 있는 일곱 개 봉우리에는 장작을 쌓아놓아서 통신수단으로 이용했다. 위급한 시기에는 봉화를 점화함으로서 신속한 통신수단으로 이용했다.*

타라스(Tarras)－*여울목으로의 도주(the flight to the ford)*

타라스는 맥켄지분지와 센트럴 온타고를 연결하는 조그만 어촌이며 린디스 패스(Lindis Pass(970.4미터) 남쪽 끝단에 자리 잡고 있다. 린디스 패스는 마오리길과 연결되는데 여름철에 웨이타키강 분지(Waitaki River Basin)에서부터 와나카호수(Lake Wanaka)와 해위호수(Lake Hawea)까지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응가이 타후(Ngai Tahu)가 사용했던 길이다. 존 턴불 톰슨(John Turnbull Thomson)이 1857년 이 길을 발견했고 1871년에는 이 갈색언덕이 오타고에서 처음으로 빨간 사슴을 풀어준 지역이 되었다. 최고의 경관을 자랑하는 이곳은 떨

어지는 해가 언덕을 선명한 갈색으로 물들임에 따라 늦은 저녁이 되면 특히 빛을 발한다.

타라스에서는 잡화점, 주유소, 기념품가게, 서점, 커피숍 등이 있어서 잠깐 동안 쇼핑하기 좋은 곳이다. 또한 메리노양 목장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에 호텔이나 모텔 대신 머물 수 있는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다. *동부대로*는 차로 10분이면 갈 수 있다. '*반지원정대*'에 나오는 장면은 사유지에서 촬영되었지만 도로에서도 많은 걸 볼 수 있다. 크롬웰(Cromwell)북쪽 방향으로 6킬로 정도 가서 우회전하면 비포장도로인 마오리 포인트 도로(Maori Point Road)로 들어서게 된다. 여기서 2킬로 정도 더 가다보면 소나무 숲 사이로 촬영이 이루어진 *동부대로*로 이용된 지역과 *여울목으로의 도주*장면을 촬영한 장소에 들어서게 된다.

마오리 포인트 도로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리븐델*을 둘러싸는 *안개산맥*을 촬영한 남알프스산맥 경관을 제대로 찍을 수 있다. 클루사강(Clutha River)도 도로 왼쪽에 어렴풋이 보인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강인 클루사강은 북섬에 있는 웨이카토강보다 약간 길이가 짧지만 2배에 달하는 강물을 흘려보낸다. 클루사는 마오리어로 마타아우(Mata-au)이며 "표면수의 급류"이라는 뜻이다. 이 강은 스코틀랜드정착민들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클라이드강(Clyde River)(클루사는 클라이드를 게일어로 말한 것)이름을 따서 지었으며 금 매장량이 풍부한 곳임이 입증되었다. 20세기 초반에는 이 강에서 150차례에 걸쳐 준설작업이 이루어졌다.

**동부대로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여행로이다. 제3시대에는 난쟁이들이 안개산맥에서 파란산맥에 있는 광산으로 이동하는 통로로 주로 사용했다. 리븐델 동쪽에서 린돈과 그레이해븐스 서쪽으로 뻗어있는 이 길은 아르웬이 프로도를 브뤼넨*

여울목을 거쳐 비교적 안전한 리븐델로 데리고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와나카(Wanaka)-*리븐델 남쪽(south of Rivendell)/안개산맥(Misty Mountains)*

와나카 호수는 즐거운 마음으로 들러볼 수 있는 곳이며 이곳에는 스튜어트 랜즈버러(Stuart Landsborought)가 제작한 퍼즐월드 & 대형미로(Puzzling World & Great Maze)가 있는데 안에 있는 고정 시점 방을 통해 반지의 제왕 3부작에서 어떤 관점에서 장면들이 촬영되었는지를 체험할 수 있다. 와나카 공항에서 뉴질랜드 공군박물관을 방문하고 동료들과 함께 올란도 블룸(Orlando Bloom)이 이용한 탠덤 스카이 다이브(Tandem Skydive)도 해 보고 와나카 비행관광을 통해서 "반지의 제왕"촬영지를 둘러보거나 해브어 샷(Have A Shot)에서 활도 쏴 보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을에 있는 물가에서부터 호수 끝에 있는 알프스산을 향해 바라보면 *간달프*가 *오르상크탑*에서 구출되고 나서 *파이히르*를 타고 *로한*으로 날아가는 장면을 촬영한 배경을 볼 수 있다.

또 다른 촬영장소는 글렌드후 만(Glendhu Bay)과 트레블콘 스키장(Treble Cone Ski Field)표지가 있는 도로에 있다. 15킬로 정도 가다보면 여러분 오른쪽에서 나오는 트레블콘을 지나게 된다. 계속 가다가 스키장에서 바로 몸을 돌리면 촬영지를 감상할 수 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갈색 언덕 위에서 컴퓨터그래픽으로 폐허를 제작했으며 *원정대*가 남쪽으로 향하는 장면을 공중에서 촬영했다.

와나카로 다시 돌아와 89번 국도를 타고 퀸즈타운으로 가보자. 길은 곧 경사가 지면서 카드로나 골짜기(Cardrona Valley)를 관통하게 된다. 카드로나 스키장(Cardrona Ski Field)과 와이오라우 스노우팜(Waiorau Snow Farm) 입구 근처에 뉴질랜

드에서 가장 오래 된 카드로나호텔이 서 있다. 영화에서는 보여주지 않았지만 술집에 들어서면 *브리*에 있는 *프랜싱포니 술집*을 즉시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술집 구석을 들여다보면 외로운 *순찰자*가 파이프담배를 조용히 입에 물고 빠끔거리거나 가무잡잡한 *동부인*이 여러분 성이 *배긴스*인지 물어볼 지도 모를 일이다. 호텔에서는 숙박 및 식사를 할 수 있다.

카드로나강을 지나면 길은 1119.7미터 고지를 향하면서 경사가 완만해 지며 여기서부터는 차를 세워 여기저기를 탐험해 볼 수 있다.

퀸즈타운(Queenstown)으로 가는 크라운랜지(Crown Range)경로

여기서 바라보는 경관은 장대하다. 왼쪽에는 *안두인강*과 *아고나스의 기둥*이 있으며 언덕 높은 곳(바로 앞)에는 *딤릴 데일*이 있다. 이제 1킬로 더 아래로 내려가서 멈춰보자. 오른쪽에 *브뤼넨 여울목*이 보이며 저 멀리 *넨 히토엘* 호수 근처에 위치한 *아몬 헨*도 눈에 띈다. 또한 이 곳에서 *원정대*가 험난한 지대인 *에레기온*을 향해 남쪽으로 가는 스틸사진도 찍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급격한 커브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길을 가다보면 갈색언덕이 오른쪽에서 위압하듯이 서 있는 비옥한 농지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다시 가파른 나선형 길이 나타나며 U자형 도로도 여섯 번이나 거쳐야 골짜기 아래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서 좌회전해서 왕의 기둥으로 잠깐 가 보자. 여기서는 센트럴오타고 와인 한잔을 즐기며 다리 위에서 *안두인강*으로 뛰어내릴 수(물론 번지줄이 연결된 상태에서) 있다.

5킬로 정도 가면 카와라우강(Kawarau River)을 다 건너게 되며 바로 왼쪽에 A.J. 해킷 번지(A.J. Hackett Bungy)본부가 보인다. 바누아투에서 처음 생겨나 뉴질랜드에서 발전한 번지점프는 이제 전 세계로 퍼졌다. A.J. 해킷과 스피드 스키선수

인 헨리 반 에쉬(Henry Van Asch)가 옥스퍼드대학의 익스트림 스포츠클럽회원들이 하는 걸보고 난 후 다리에 신축성 있는 번지줄을 매달아 놓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는 아이디어를 고안했다. 1987년에 해킷이 에펠탑에서 번지점프를 하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그리고 악평도 받으면서)신종스포츠로 부상했다. 1988년 11월에는 역사적인 카와라우 현수교가 세계 최초의 '번지점프다리'가 되었다. 현재 퀸즈타운 내에 있는 번지점프구역은 여섯 군데이며 올랜도 블룸과 동료배우들이 이곳에서 촬영하는 동안 시도했던 134미터 높이의 네비스 하이와이어(Nevis Highwire)번지점프대도 있다.

카와라우강(Kawarau River)－*왕의 기둥(Pillars of the Kings)*

해킷의 번지점프대 바로 맞은편에는 차드농장 포도원(Chard Farm Vineyard)으로 가는 진입로가 있으며 이곳에서 *안두인강*과 *아고나스*(*신다르어*로 '*왕의 기둥*'이라는 뜻)의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기둥은 강 양쪽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합성한 것이지만 막상 가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짧은 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센트럴 오타고에 처음으로 생긴 포도밭 중 한 곳을 발견하게 된다. 남위 45°에 위치한 센트럴 오타고는 포도 재배지인 남쪽 끝단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 보르도 지방에서 스페인 남부사이가 오타고와 같은 북반구에 자리 잡고 있다.

차드농장은 1987년에 세워졌으며 남부호수구역에서 최초의 상업적 목적으로 조성된 포도밭 중 하나였다. 그 이후 이곳은 소구역 네 군데를 합치게 되면서 뉴질랜드 최대의 와인생산지역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이곳의 고도와 기후는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여러분은 해수면에서 가장 높은 뉴질랜드 포도밭이자 바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포도밭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대륙성 기후로 인해 여름에는 온난 건조하고 가을에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시원하며 겨울은 추워지는 한편 습도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낮의 기온대 덕분에 백포도주의 맛과 산을 간직할 수 있으며 피노 누아(Pinot Noir)의 색깔도 변화시킨다. 포도주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주일 내내 차드 농장 포도주 저장고 문 앞에서 판매를 한다. 사전에 예약을 해야 양조장 견학을 할 수 있다.

크롬웰 방향으로 2킬로 정도 더 가다보면 깁스톤 밸리 와인(Gibbston Valley Wines)이 나온다. 이 곳은 유명한 레스토랑과 근처에 있는 치즈공장, 그리고 독특하면서도 기발한 와인동굴을 자랑하고 있다. 여기서 약 76미터 더 들어가면 센트럴 오타고 편암이 있는 곳에 도착하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이다. 모든 관광은 동굴로 끝나며 독특한 환경에서 깁스턴 밸리 차도내이(Gibbston Valley Chardonnay)와 피노 누아를 시음하면서 즐길 수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안두인강 깊은 틈에 자리 잡은 두개의 커대한 이실두르와 애나리온 조각상은 제3시대에 곤도르의 로멘대실이 영토의 북쪽 입구를 표시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카와라우강(Kawarau River)－*왕의 기둥(Pillars of the Kings)*

뗏목을 타고 *안두인강*을 내려가는 코스는 놓치지 말아야 뿐 아니라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지역 회사인 익스트림 그린래프팅(Extreme Green Rafting)은 2년 간 피터잭슨과 함께 일하면서 강을 촬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래프팅 장비와 전문지식을 전수해 주었다. 현재 *안두인강*은 두 개의 래프팅 코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하나는 액션이 가득한 실감나는 래프팅이고 다른 하나는 모험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이들을 위한 코스로서 잠수용 고무복을 입을 필요도 없다. 어느 코스든 간에 *아고나스* 촬영지를 지나간다. 근처 퀸즈타운에 있는 사무실에 전화해서

예약을 해도 되고 타운 센터에서는 운송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카와라우강은 수원인 와카티푸 호수에서부터 크롬웰을 따라 흐른다. 카와라우 협곡은 한 때 금 매장량이 풍부한 지역이었으며 크롬웰에서 15킬로 정도 더 가다보면 나오는 골드필드 채광센터(Goldfields Mining Centre)에서 옛날 광부들의 생활상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여기서는 투어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채광은 물론 강을 따라 신나는 제트보트 타기도 즐길 수 있다.

다시 퀸즈타운 방향 도로로 돌아와서 1킬로 정도 크라운 렌지 출구를 지난 후 애로우타운과 브뤼넨 여울목 방향에서 우회전해서 가자.

**총 길이 1300마일의 안두인강은 중간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북쪽에 있는 머크우드에서부터 남쪽에 있는 곤도르까지 많은 지역을 거쳐 가며 마지막에는 넓은 삼각지에서 확대되어 돌 암로스 남쪽에 있는 이디아 안두인을 통해 바다로 흘러간다. 원정대는 11일간 로스로리엔에서부터 시작해 원정대가 해산하는 아몬 헨까지 300마일에 가까운 거리를 노를 저어 내려왔다.*

애로우 타운(Arrowtown)-*브뤼넨 여울목(the Ford of Bruinen)*

퀸즈타운에서 20분이면 갈 수 있는 멋진 곳에 위치한 애로우 타운은 '금이 나오는 곳'임을 자처한다. 1862년 윌리엄 폭스(William Fox)가 이 곳에서 세계 최대 금 매장지를 발견하고 그 이후 골드러시가 일어나 7000명에 달하는 유럽인과 중국인이 이곳에 와 근처 애로우 타운과 쇼트오버강에서 사금을 채취했다. 북적거리던 마을에서는 무법행위도 있었으며 악명 높은 갱단과 불량배가 금광에 내려와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 좁다란 일방통행 중심가에 위치한 멋진 레이크 디스트릭스 센테니얼 박물관(Lakes District Centennial Museum)은 금광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지역에 관한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곳 가을은 특히 멋지다. 이전의 모습을 간직한 광부의 오두막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햇빛을 받으며 안개 낀 분위기를 연출하면 나무들이 빼곡히 자란 중심가는 붉은 빛과 황금빛이 어우러진 잎사귀가 가득한 카펫으로 변신한다. 근처 언덕에 있는 소나무와 함께 여기저기에 자라는 낙엽송은 황금빛으로 뒤덮이며 공기도 맑고 상쾌할 뿐만 아니라 아침에 서리가 우지직거리는 소리는 멋진 새아침이 시작되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애로우 타운에 있는 가게와 대부분의 화랑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둘러보고 카메라도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현재 복원된 중국광부의 오두막은 중심가에 있는 짧은 산책로를 경유해서 가면 볼 수 있으며 애로우 타운의 과거를 회상케 하는 흥미로운 건물이다.

근처에는 세계에서 유명한 밀부룩 리조트(Millbrook Resort)가 있는데 호화 숙박시설과 레스토랑이 있으며 72파 세계 챔피언십 골프장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뉴질랜드 출신의 유명골프선수 밥 찰스경(Sir Bob Charles)이 골프장을 디자인했다.

애로우 타운(Arrowtown)-브뤼넨 여울목(the Ford of Bruinen)

여울목은 애로우강에 접해 있는 마을 중심부에서 몇 분이면 갈 수 있다. 중심가 뒤에 있는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고 근처 강둑까지 걸어가 보자.

정확한 지점에 도착하려면 강 상류를 따라 200미터 정도 올라가면 되며 강을 걸어서 건너는 경우도 있다.(건넌다해도 물이 발목까지 차는 경우가 보통이다.) 여기까지 오면 *아르웬*이 *프로도*를 자신의 애마 *에스팔로스* 위에 태우고 강을 건널 때 *나즈굴*이 돌격하던 장소에 이르게 된다. *나즈굴*이 강을 따라 내려오던 길이 왼쪽으로 선명하게 보인다.

강물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장면은 스키퍼스 캐년(87쪽 참조)에 있는 숏오버강에서 촬영했다. 비교적 '공개적인' 촬영장소 가운데 하나였던 이곳에서는 3일간 촬영을 하는 동안 많은 지역주민들이 강둑에 줄지어 서서 촬영장면을 지켜보았다. 이곳에 있는 새프론 레스토랑(Saffron Restaurant)은 출연진들이 가장 좋아하는 저녁식사장소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금을 채취할 수 있으며 중심가에 있는 가게에서는 금을 채취하여 주말에 쓴 여행경비를 마련 할 수 있게 해주는 선광냄비도 대여하고 있다.

*아르웬*이 주문을 외워 일으킨 마법의 홍수로 *나즈굴*을 내쫓았는데 이상하게도 실제로 그런 홍수가 나고 말았다. 1편 반지원정대를 촬영하는 동안 세트장 일부가 진짜 홍수로 인해 떠내려가 버렸던 것이다.

**리븐델의 여울목은 동부대로가 브뤼넨강(신다르어로 '큰 소리를 내는 물)을 가로지르는 지점에 있다. 그 강은 엘론드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강 수위를 올려서 원치 않는 방문객이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으며, 숨겨진 골짜기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했다.*

애로우 타운(Arrowtown)－*글라덴 평원(The Gladden Fields)*

*글라덴 평원*은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나온다. 버킹엄가(Bukingham Street)로 느긋하게 내려가면서 말끔히 복원된

광부의 오두막을 지나 나인가(Nairn Street)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보자. 계속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윌콕스 그린(Willcox Green)이 장대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여기서 강 근처 나무숲을 통과하는 길을 따라 가면 촬영지에 도착하게 된다.

겨울에 이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이실두르*가 *안개산맥*에서 *오르크*들에게 공격당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려는 듯 나무 잎사귀들은 다 떨어져 있었다. 여기서 *절대반지*에게 배신당한 *이실두르*는 결국 목숨을 잃고 *안두인강*에 쓸려 내려갔다.

이곳은 가을철에 방문해도 좋은데 이때는 나무와 그 아래로 드리워진 금빛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거기에서 *로스로리엔*에 비견할 만한 반사광이 일어나면서 강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게 된다.

**글라덴평원(신다르어로 로에그 닝글로론)은 글라덴평원과 안두인강 합류점에 위치한 늪지대들로 이루어져 있다. 절대반지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인 이곳에서 2년(제3시대)때 이실두르가 아르노르의 북쪽 왕국의 권리를 다시 주장하기 위해 가던 도중 오르크들의 매복공격을 받았다. 공격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던 도중 절대반지는 이실두르를 배신하고 그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수년이 지나서 호빗무리가 이곳에 정착하게 되고 결국에는 디골(스미골의 사촌)이 다시 반지를 발견하게 된다.*

스키퍼스 캐년(Skippers Canyon)-*브뤼넨 여울목(the Ford of Bruinen)*

퀸즈타운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는 오른쪽으로 코로넷 피크(Coronoet Peak) 스키장이 보일 것이다. 또 하나의 포장된 진입로가 퀸즈타운 가까 운 곳에 있는데 겨울철에 스키장 이용객들을 위한 도로였지만 주차장에서 보

이는 와카티푸 분지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면서 연중 내내 개방되어 있다. 스키와 스노보드가 겨울철 인기종목이며 해외 관광객들이 매년 찾아와 멋진 경관을 만끽한다. 퀸즈타운 내에는 9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스키장이 다섯 군데나 있다.

코로넷 피크 도로를 이용해서 스키퍼스 캐년으로 갈 수도 있다. 여기서 4륜 구동차량 회사인 노마드 사파리(Nomad Safaris)편으로 캐년을 돌아보면 더욱 좋다. 이 회사는 현재 반지의 제왕 투어를 전담하고 있는데 회사 소속 운전수들 대부분이 촬영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얻을 게 많다. 스키퍼스 도로는 렌트카로는 갈 수 없으며 지역 자체가 길이 구불구불해서 이런 종류의 길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 특히 고생하게 된다.

과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던 시절, 스키퍼스는 이 지역에서 금 매장량이 매우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매 평방피트마다 금 1온스가 있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이드를 데리고 들어가 볼만하다. 험준한 계곡, 구부러진 길, 진한 갈색 언덕과 이와 대조되는 눈 덮인 봉우리도 아름답지만 강 자체도 멋지다. 원형을 간직한 다리(12킬로 정도 계곡으로 들어가는 지점에 있음) 근처 지점에서는 *반지원정대*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인 *브뤼넨의 여울목*의 홍수 장면을 촬영했다.

퀸즈타운 방향으로 조금 더 가다보면 왼쪽으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캔틀리스 레스토랑(Gantleys Reataurant)을 지나게 된다. 이 레스토랑은 내부 촬영을 위해 비를 피하는 곳으로 이용한 퀄리티 리조트 알파인 로지(Quality Resort Alpine Lodge) 맞은편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는 동안 출연진과 제작진이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맛있는 요리와 와인을 즐길 수 있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퀸즈타운(Queenstown)

퀸즈타운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인기 관광지 가운데 하나이다. 와카티푸 호수를 따라 고산계곡에 위치한 이곳에 와서 보면 이곳을 다녀갔던 관광객들의 감탄사가 과장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마오리족 전설에 따르면 티푸아(tipua)라는 악마가 한 아름다운 소녀를 납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악마가 자고 있는 사이에 소녀를 구출한 연인이 주변에 불을 질렀고 불길이 악마의 몸에 닿자 악마는 고통스러워 위로 껑충 뛰었다. 몸 속에 있던 엄청난 지방으로 인해 불길은 더욱 거세어 지고 악마가 울부짖는 동안 몸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비와 눈이 내려 불은 꺼졌지만 악마는 완전히 불에 타 심장만 남았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 있는 호수 형태는 악마의 몸 윤곽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고동치는 심장 때문에 와카티푸 호수의 수심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유럽인은 윌리엄 길버토 리스(William Gilbert Rees)와 폴 본 툰젤만(Paul von Tunzelmann)이다. 이들은 수 주 동안 가시덤불을 헤쳐나간 끝에 와카티푸 호수에 도착해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윌리엄 폭스(William Fox)가 애로우강에서 금을 발견함에 따라 평화로운 삶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이곳에서 양을 길렀다. 그 후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퀸즈타운은 광부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는 주요 서비스 중심지가 되었다.

'금광'은 이제 퀸즈타운의 관광산업이 되었으며 세계각지 사람들이 '뉴질랜드 모험의 중심지'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퀸즈타운을 찾는다. 출연진과 제작진은 이곳의 풍광에 푹 빠졌으며 *호빗*들은 나이트클럽과 호텔을 돌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인근 고등학교는 오디션본부를 겸하게 되면서 학교 교

장과 학교선생님들이 *오르크*가 되고 택시운전사들은 *로한*의 백성역할을 맡게 되었다. 캐스팅이 절정이었을 당시에는 하루에 500명에 달하는 사람이 *중간계*로 가기 위한 기회를 잡으려 줄을 설 정도였다.

처음에 상주인구 11,000여명에 불과하던 퀸즈타운은 이제 해마다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곳이 되었다. 교통이 통제된 중심가는 햇빛이 내리쬐는 곳에 앉아서 '커피 한잔'을 즐기기에 제격이며 그 뒤로 시원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호수와 산이 드리워져 완벽한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관광활동 종류를 여기서 일일이 나열할 수 는 없지만 관광예약사무실에서 모든 이들의 취향과 나이에 맞춰 적절하게 조언해 주고 있다.

강의 귀부인이라고 불리는 증기선을 타고 유람을 하는 것도 퀸즈타운 여행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90주년을 기념하는 언슬로우(Earnslow)증기선은 1912년에 제조되어 킹스톤(Kingston)에 있는 철도종점까지 운송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50미터를 조금 넘는 전장에 갑판보가 7.3미터나 되는 이 위풍당당한 증기선은 현재 와카티푸 호수행 관광코스용으로 운영되고 있다. 월터 피크(Walter Peak) 유람코스를 택하면 *아몬 헨*(클로즈번)을 멀리서 도 바라볼 수 있다.

곤돌라를 타고 밥의 피크(Bob's Peak)를 올라가면 그 풍경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세계에서 가장 경사가 급한 삭도들 가운데 하나인 이곳은 731미터의 거리에 걸쳐 경사가 446미터까지 올라간다. 산 정상에는 레스토랑이 영업하고 있고 거기서 저녁식사를 하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경관 하나를 즐길 수 있게 된다.

퀸즈타운은 연중 내내 즐겨 찾을 수 있는 곳이며 겨울철에는 온 마을이 눈으로 뒤덮여 스키이용객들을 흥분케 하며 여름철에는 기온이 30도를 웃돈다.

이곳 촬영지를 제대로 돌아보려면 3일은 족히 걸린다. 그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고 시간을 내서 레틀 스네이크바(Rattlesnake Bar), 카우 레스토랑(The Cow Restaurant), 류지스 호텔(Rydges Hotel)도 가 보자. 그곳들 모두가 제작진이 술을 마시며 즐기던 곳이다.

**우리는 바로 여기 이 세상의 끝에 있었지만, 여기에는 친숙하면서도 다소 환상적인 자태를 자랑하는 산과 숲, 평원, 강, 호수, 폭포가 있었다.*

-피터 잭슨(Peter Jackson:감독)

디어파크 언덕(Deer Park Heights)-디어파크 언덕(Deer Park Heights)

디어파크 언덕은 테 아나우 방향 주요 도로에서 벗어난 지점에 있으며 퀸즈타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이다. 공항입구를 지나 카와라우강을 가로질러 오른쪽에 켈빈 언덕(Kelvin Heights)이라는 표지판이 있는 길을 타고 가자. 5킬로 정도 더 가다보면 왼쪽에 입구가 보인다.

디어파크 언덕은 800미터 높이의 원뿔형 언덕이며 정상에는 길이 여러 갈래로 나 있는 대형 영화 세트장이 있는데 어느 쪽 길로 가든 상관없이 언덕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북쪽으로 공항이 있는 지점을 내려다보면 *안두인강*이 *왕의 기둥*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보인다. 언덕사면은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제작하는 촬영장소로 사용되었으며 퀸즈타운과 가까운 곳에 있는 관계로 멋진 즉석촬영장소로 사용되었다.

영화 3편을 촬영한 장소를 모두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촬영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90쪽에 실린 지도에 그 번호들이 표시되어 있다.

'반지원정대'와 '왕의 귀환' 촬영지를 찾고 싶으면 언덕 정상

으로 가는 비포장 길을 따라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1986년 영화인 구출(The Rescue)에서 한국인 감옥으로 사용된 세트장을 발견하게 된다. 첫 번째 촬영장소는 감옥 옆에 있는 길 왼쪽으로 몇 미터 정도 나 있는 남쪽방향 길이며 여기서 *간달프*가 공개용 사진을 촬영했다.

두 번째 촬영장소(1)는 조그만 산정호수이며 주차장에서 남쪽으로 500미터 거리에 있다. 여기서 *간달프*가 *서부대로*를 타고 *미나스 티리스*를 거쳐 *곤도르*로 가는 짤막한 장면을 촬영했다. 주차장으로 돌아와서 언덕 아래로 조금만 내려가 보자. 소가 지나지 못하게 막아놓은 길목을 바로 넘고 나서 차를 왼쪽에 세우자. 그러면 *사자의 길*(7) 출구 벽이 보일 것이다.

디어파크 언덕(Deer Park Heights)－*두개의 탑(The Two Towers)*

'두개의 탑'에 나오는 장면들 대다수는 이곳에서 촬영했다. 촬영장소가 때때로 지리상으로 훨씬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틈도 없는 액션장면으로 완성했다는 점은 정말 흥미롭다. 언덕 기슭에 있는 요금 징수소에서부터 언덕까지 올라간 후 왼쪽(3)에 있는 거대한 문 옆에서 멈추자. 여기서부터 왼쪽 아래는 거대한 암벽인데 여기서 *와르그* 척후병이 *하마*를 덮쳐서 죽였다. 언덕 위로 계속 올라가서 오른쪽에 있는 조그만 산정호수(2)에서 멈춰보자. 여기서는 *김리*가 달리는 말에서 내던져져 *에오윈*이 즐거워하던 장면을 촬영했다. 여기서 조그만 더 위로 길을 따라 올라가면 등산로가 나오는데 절벽의 형세를 보면 *아라곤*이 끌려가 떨어진 지점임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절벽 아래로는 낭떠러지나 강이 있을 걸로 예상하겠지만(그 장면은 카와라우 근처에서 찍음) 풀이 많이 나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가 *와르그*들과 *로한*의 기마병들이 충돌한 지점이기도 하다. 길을 가로질러 언덕 위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조금만 더 올라가 보면 *레골라스*가 전투에 나서기 전에 멋지게 점프해 말에 올라탄 장면(5)을 촬영한 곳이 나온다. 마지막 촬영지는 이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다. 주차장 정상 근처에 있는 거대한 산정호수에서는 *로한*의 피난민들이 완벽하리만치 맑고 신선한 겨울 아침에 피난 가는 장면(1)을 촬영했다.

리마커블즈(The Remarkables)- *딤릴 데일(Dimrill Dale)*

지칠 대로 지치고 사기가 꺾인 원정대가 *간달프* 없이 악몽 같은 *모리아의 광산*에서 도망쳐 나오는 역경을 담은 장면은 남섬 반대편 끝에 있는 두 군데 장소에서 촬영했다. 원정대가 평정을 되찾고 나자 *아라곤*은 원정대를 이끌고 가파른 *딤릴 데일* 경사면을 내려와 *로스로리엔*으로 향했다. 촬영장소는 리마커블 산맥 정상에 있으며 두개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

체력이 좋은 사람들은 차를 몰고 퀸즈타운에서 20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리마커블 스키장 정상에 갈 수도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언덕으로 20분 정도 더 걸어가다 보면 산정호수인 알타 호수가 모습을 드러낸다.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있어야 한다.

제일 쉬운(그리고 더욱 신나는) 방법은 헬리웍스(Heliworks)가 제공하는 헬기관광을 하는 것이다. 이 회사는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제작하는 동안 대부분의 공중촬영 및 운송을 담당했다.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 헬리웍스는 이제 *중간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으며 노련한 조종사인 알피 스페이트(Alfie Speight)와 데니스 에거톤(Dennis Egerton)이 여러분을 퀸즈타운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촬영지로 바로 데려다준다.

헬리웍스는 *알타호수*, *아몬 헨*, *브뤼넨 여울목*을 거쳐가는 30분짜리 코스에서부터 90분 동안 모든 촬영지를 돌아보는 화려한 비행관광코스 등 세 종류의 반지의 제왕 촬영지 관광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이히르*처럼 남알프스산 주변을 날아다니며 여러분들만의 *중간계* 여행을 해 보는 것도 매우 특별한 경험이며 뉴질랜드에서의 *중간계* 관광코스 중 최고의 코스이므로 적극 추천하고 싶다.

리마커블즈(The Remarkables)－*딤릴 데일(Dimrill Dale)*

헬리웍스는 리마커블 산맥(Remarkables Range)에서 매우 높은 곳에 있는 착륙지점까지 바로 데려다 주며 여기서 *딤릴 데일*과 *켈레브란트*의 풍경을 멋지게 사진에 담을 수 있다.

알타 호수는 고지대에 있는 전형적인 산정호수이다. 겨울철에는 꽁꽁 얼어붙어 눈으로 뒤덮이지만 여름에는 햇볕에 강한 고산식물들이 편암 밑에 드문드문 있는 흙 속에서 간신히 살아간다. 편암은 남섬 주변 산에서 흔히 발견되는 변성암으로 지구 깊숙한 곳에 있는 바위가 열이나 강한 압력을 받아 생성된 것이다. 점판암과 비슷한 편암은 부서지기 쉬운 성질을 띠며 여러 갈래로 쉽게 쪼개진다. 널리 쓰이는 건축자재인 편암은 남쪽 호수 지역에 있는 멋진 집들을 짓는데 사용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모리아 광산 서쪽 출입구에서 뻗어 나오는 깊은 골짜기인 딤릴 데일은 아자눌비자라는 난쟁이와 난둘히리온이라는 엘프에 의해 알려졌다. 그 문 자체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딤릴 문'이라고 부른다. 가파르게 내려가는 길은 난쟁이들의 가장 신성한 장소인 미러미어(난쟁이어로 켈레드 자람이라고 함)를 스쳐 지난다. 전설에 의하면 불멸의 두린이 고요한 깊은 물에 몸을 내밀어 머리에 씌워진 일곱 개 별 왕관을 보며 자신이 왕의 신분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켈레브란트(신다르어로 '은빛 수로'이며 실버로드강이라고도 불림)강은 딤릴 데일의 수원에서부터 골짜기를 따라 로스로리엔으로 흘러간다.*

클로즈번(Closeburn)－*아몬 헨(Amon Hen)*

글레노치로 가다보면 45킬로 길이의 와카티푸 호수가를 지나게 된다. 그 길은 호수와 산을 내려다보면서 높은 절벽을 오르기도 하며, 때로는 호수 수면과 같은 외딴 만들을 지나게 된다. 소나무들이 낮은 산지를 뒤덮고 있으며 멋진 산책길도 몇 군데 보인다. 갈색 송어와 무지개 송어가 호수가 가까이에서 헤엄치고 있으니 낚싯대를 준비해두자. 비고 모르텐슨은 여기서 제물낚시도 했다. 그리고 낚시허가증도 잊지 말고 만들어 놓자.

클로즈번은 퀸즈타운에서 8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아몬 헨*의 실제장소에는 접근할 수 없지만 언덕에서 내려와 클로즈번 만으로 갈 때 반드시 호숫가에 멈춰 서자. 여러분 왼쪽으로 보이는 반도 위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그 사이에 촬영지가 있으며 한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촬영한 사실이 여기서 분명히 드러난다. 클로즈번, 파라다이스, 마보라에서 '*반지원정대*'의 대단원의 막을 장식하는 장면을 촬영했으며 제작자들이 세 개 지역을 자연스럽게 한 장면으로 합쳤다. 여름철이 되면 클로즈번은 이상적인 바비큐 요리장소가 되며 향기가 나는 *이딜리엔*의 숲과 매우 흡사하다. 고추나물(St John's wort)과 유럽들장미(sweet briar rose)가 특유의 향기를 발산하며 그 다채로운 색깔은 크림색의 하얀 디키탈리스(foxglove)와 극명하게 대비된다.

근처에 있는 마타카우리 로지(Matakauri Lodge)는 클로즈번과 트웰브 마일 삼각지에서 가장 가까운 숙소이며 도시와 완전히 격리된 호화 숙박지이기 때문에 멋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여기서 소나무의 향, 산과 호수의 멋진 경치를 음미하고 있노라면 *이딜리엔*과 *중간계*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트웰브 마일 삼각지가 *이딜리엔* 야영지로 사용된 것도 당연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아몬 헨(신다르어로 '눈의 언덕'이라는 뜻)은 누메노르 왕가 일족이 곤도르 북쪽 국경을 표시하기 위해 감시탑 용도로 세운 것이다. 안두인강과 라우로스 폭포 양쪽에 있는 세 개의 큰 언덕 가운데 하나인 아몬 헨은 동쪽 강둑에 있는 아몬 라우(신다르어로 '귀의 언덕'이라는 뜻)와 강 중턱에 있는 톨 브란디르(틴드록)와 같이 세워졌다.*

트웰브 마일 삼각지(Twelve Mile Delta)－*이딜리엔(Ithilien)*

클로즈번을 지나 약 4킬로 지점에 위치한 트웰브 마일 삼각지에는 대규모 야영지와 산책로, 산악자전거길이 많이 있는데 이 길들을 따라 *이딜리엔*으로 갈 수 있다. 두 지역에서 *이딜리엔*을 촬영했는데 여기서 *샘*이 *올리펀트*를 보았다. 이곳에 가려면 강 아래로 내려와 와카티푸 호수 방향으로 걸어가면 된다. 오른쪽에 있는 강둑에서는 *프로도*, *샘*, *스미골*이 *하라드족*과 *곤도르의 순찰자*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을 지켜보았다. *샘*과 *스미골*이 토끼를 요리할 때 '감자'를 넣으면 맛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던 절벽 위쪽의 은신처로 올라가려면 강 서쪽 끝에 있는 산책로로 돌아가자.

**여기서 프로도와 샘이 검은 문의 공포를 겪고 난 후 쉬는 동안 위쪽 능선에서 격렬한 전투를 목격하게 되고 거기서 전설의 무마크를 보게 되었다.*
하라드족은 제3시대동안 거의 끊임없이 곤도르에 맞서 싸워왔다. 이들의 영토는 남쪽에 있으며 여러 개의 작은 땅으로 나뉘어져 모두가 곤도르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다. 거무스름한 피부의 하라드족은 노련한 전사들이며 등에 전투탑으로 무장한 엄청나게 큰 후피동물인 무마킬 등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전법

으로 공격했다.

트웰브 마일즈 삼각지(Twelve Miles Delta)-*이딜리엔(Ithilien)*

이 길을 따라 가면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육교를 건너게 되는데 그 밑으로 트웰브 마일 개울이 와카티푸 호수로 세차게 흐르고 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왼쪽에 있는 웅덩이를 보자. *스미골*이 자기가 좋아하는 물고기를 잡은 장소임을 금방 알 수 있다. 길을 따라 십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스미골*이 토끼를 잡은 장소에 도착하게 된다. 여기서 덤불숲을 지나면 세 명이 전투를 지켜보던 절벽 가장자리에도 갈 수 있다. 하지만 절벽이 툭 튀어 나와있어 위험하므로 가장자리까지 너무 가까이 가지는 말자. 이곳은 산책하기 좋으며 봄과 여름에는 허브와 야생화가 길 양쪽에 흐드러지게 핀다. 꽃들이 메마른 땅과 거친 마타고리(matagori)덤불과 조화를 이루는데 이 땅은 *사우론*의 악에 의해 조금씩 썩어 들어가는 듯한 환상을 일으키면서 *이딜리엔*을 완벽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길은 다음에 나오는 고원까지 이어지면서 산과 호수가 멋지게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나있다.

글레노치(Glenorchy)-소개

조그마한 마을 글레노치는 와카티푸 호수 북쪽 끝단에 위치해 있으며 눈 덮인 안개산맥의 뾰족한 봉우리들이 그 뒤로 멋진 풍광을 연출한다.

마오리족이 포우나무옥(pounamu)(이 지역에서는 옥 혹은 녹옥으로 알려져 있음)을 찾아 이 지역을 거쳐갔지만 1862년이 되어서야 정착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방대한 강바닥을 방목지로 이용했다. 뒤이어 삼천 여명에 달하는 금광부들이 이 지역을 찾았지만 다른 지역보다 금 매장량이 적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떠나고 말았다. 1890년대에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들어서면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퀸즈타운 에서부터 호수를 따라 여행하는 유럽여행객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들어섰다. 1905년에 회중석(무기급 텅스텐 제조에 사용하는 광석)이 발견되자 1980년대까지 오십 여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이 지역에서 철광석을 캐냈다. 오늘날에 와서 글레노치는 이백 명이 조금 넘는 주민이 사는 도시이자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글레노치는 3555,543헥타르의 면적에 테 와히포라무(Te Wahipounamu)의 일부인 애스파이어링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관문이기도 하다. 마을 내 환경보전부 안내센터는 주변에 있는 멋진 산책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배낭족에서부터 고급 여행객까지 여러 부류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으며, 특히 글렌 로돈 로지(Glen Roydon Lodge)는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요리와 멋진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이 곳은 제작진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었으며 주인인 일렌 토드(Eileen Todd)는 피터잭슨과 모닝커피를 함께 한 시간과 *아몬 헨* 세트장에서 보낸 시간을 자랑스럽게 애기해준다.

여기서 산책, 제트보트 타기, 그리고 *이젠가드*, *아몬 헨*, *로스로리엔*으로 말을 타고 가는 호스트레킹(horse trekking)을 즐기다보면 며칠이 금방 간다.

글레노치(Glenorchy) – *이젠가드(Isengard), 로스로리엔(Lothlorien)*

북쪽으로 가는 마을을 뒤로하고 파라다이스라는 표지판이 새겨진 길을 따라 가보자. 한참 걸어가다 보면 아카디아 숙박집(Arcadia guesthouse)이 왼쪽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계속해서 가다보면 길은 강바닥에서 너도밤나무 숲으로 바뀐다.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지역에 있던 파라다이스 덕스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고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이 지역의 멋진 경치 때문이라고도 한다.

26킬로 정도 가다보면 단 목장(Dan's Paddock)에 이르게 된다. 오른쪽에 있는 경사면 위 지역이 *간달프*가 *이젠가드*로 말을 타고 갔던 길이다. *안개산맥* 일부를 촬영하기 위해 목장 아래부터 우뚝 솟은 언슬로우산(Mt Earnslow) 봉우리를 담기도 했다.

아름다운 숲과 확 트인 농장을 따라 2킬로 정도 더 가고 나서 경작지를 바로 넘어 숲 속의 늪지대에 도착하면 거기서 잠시 멈춰보자. 이곳에 있는 숲 가장자리에서 원정대가 *로스로리엔*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 지점을 지나면 건너야만 하는 조그만 개울이 나오면서 지형이 험준해진다.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다트강사파리(Dart River Safaries)와 다트마구간(Dart Stables) 여행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가이드들이 영화촬영에 협조했으며 이와 관련한 흥미진진한 체험을 많이 해서 이 여행을 특별하게 해 준다.

**마법사의 계곡(난 쿠루너)은 안개산맥 남쪽 끝단에 위치한 거대하고 거의 원으로 둘러싸이다 시피 한 계곡이다. 메테드라스(신다르어로 '마지막 봉우리')는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 돌 바란 이라는 조그만 산은 서쪽을 향하면서 북쪽에 자리 잡고 있다. 마법사의 계곡은 전략적 요충지로서 로한의 고개와 이젠가드의 여울목이 내려다보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는 군대가 통과하지 못하게 방어할 수 있다. 헬름 협곡은 이젠가드에서 약 100킬로 지점에 있다.*

다트강 사파리 및 펀약코스(Dart River Safaries and Funyaks)－*이젠가드, 로스로리엔, 아몬헨(Isenguard, Lothlorien and Amon Hen)*

글레노치에서 시작하는 다트강사파리는 제트보트와 펀약(funyak)을 이용해 다트강 계곡으로 가는 관광코스를 제공함으로서 *이젠가드*, *로스로리엔*, *아몬 헨*을 탐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퀸즈타운으로 갈아탈 수 있는

교통수단도 제공해준다.

여기서부터 45분 정도 비포장길을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모험은 시작된다. *이젠가드*를 지나면 20분 정도 걸리는 수풀길에서 제트 보트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군데 멈춰서 둘러볼 만한 곳이 나타난다. 이 지역은 *올드 포레스트*나 위대한 *머크우드*를 연상시키는 듯한 경이로운 느낌을 주며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불변의 상태에 있는 듯 보인다. 조그만 개울은 이끼 낀 벽을 통해 흘러 들어가면서 다트강이 모래자갈 위를 세차게 흐르는 소리와 더불어 그림 같은 장면을 연출한다.

이 모든 것들은 90분 동안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갈 제트보트 타기의 서막에 불과하다. 처음 나오는 강을 따라 더 가다보면 좁다란 여울목을 스치듯 지날 때 주변에 있는 산이 여러분을 포위하듯 둘러싸기 시작한다. 여기저기 멈춰서 둘러볼 만한 곳들도 종종 나타나며 보트운전자는 그 유명한 헤밀턴 턴(Hamilton Turn)을 포함한 보트의 성능에 대해 설명해 준다. 글레노치로 돌아가면서 강은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며 *메리*와 *피핀*이 *오르크*들에게 붙잡힌 *아몬 헨*을 촬영한 덤불지역과 가까운 지역에서 또 볼만한 곳들이 나타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다트마구간(Dart Stables)－*아몬헨, 로스로리엔(Amon Hen and Lothlorien)*

이 지역에서 가장 경이로운 모험은 다트마구간에서 제공하는 호스트레킹 코스이다. 초보자와 숙련자 모두에게 적합한 코스는 물론이고 이틀 간의 일정으로 영화 촬영지인 *로스로리엔*과 *아몬 헨* 산허리에서 가까운 지점으로 데리고 가는 트레킹 코스도 있다.

강 옆을 따라 가다보면 산과 가까운 지점에 이르게 되고 곧 태고의 모습을 간직한 너도밤나무 숲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날 밤은 멋진 토착덤불숲으로 둘러싸인 경작지에 위치한 오두막에서 머물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원정대*가 *할디르*를 만나 *갈*

*라드리엘*에게 가는 장면을 촬영했다.

이 지역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얼룩진 햇빛이 나무들 사이를 통해 새어나와 발 밑으로 무성하게 자란 이끼와 모든 경사면을 따라 쌓여있는 마른 잎을 비춘다. *로스로리엔*을 완벽하게 묘사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촛불을 켜고 하는 저녁식사가 끝나고 나면 편안하게 쉬거나 폭포수영장에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다. 별 아래로 탁탁 타오르는 불가에 앉아 있노라면 중간계로 가는 길이 완성되고 *길도르 이글로리온*과 그의 *엘프*친척이 소리 없이 당신에게 다가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달라고 해도 하나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루트번 트랙로드(The Routeburn Track Road)-*이젠가드(Isenguard)*

루트번 트랙로드에서는 웨타 스튜디오가 놀라운 디지털기술로 시각적 충격을 전달하는 *이젠가드 탑*과 구덩이를 만들어낸 지역을 가장 잘 볼 수 있다. 글레노치를 뒤로하고 처음에 나오는 글레노치/파라다이스 길을 따라 가다가 킨로크(Kinloch)와 루트번(Routeburn)이라는 표시가 나 있는 길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가라. 다트강을 지나자마자 곧바로 오른쪽으로 돌아 2킬로 정도 쭉 가면 된다. 스콧 크리크(Scot Creek)를 지나 약 100미터 지점에서 가장 잘 보인다.

목장 근처에 서 있으면 계곡에서 우뚝 솟아있는 *메테드라스*의 장대한 봉우리와 함께 *난 쿠루너*(마법사의 계곡)에 위치한 *이젠가드*를 쉽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는 실제 배경과 컴퓨터그래픽이 합쳐져 놀라운 효과를 연출했다. 처음에는 헬기 하체에 거대한 '우주용' 카메라를 장착해 주변 지역을 정확한 원을 그리면서 날며 필요한 풍경사진을 수집했다. 그러고 나서 *오르상크 탑* 미니어쳐를 추가하고 웨스트코스트(West Coast)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덤불로 뒤덮인 언덕 사진을 집어넣었다(원 왼쪽). 마지막으로 다트강을 제거하고

몇 백 시간동안의 합성 작업 끝에 *이젠가드* 전체를 만들어냈다.

여러분이 이 지역을 좀 더 생생하게 감상하고 싶으면 여기서 야영을 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가다가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레이크 실반길(Lake Sylvan Road)를 따라 가보자. 끝 지점에는 환경보전부가 조성한 야영장이 있어서 하룻밤 묵기에 완벽한 장소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실반 호수에 직접 가 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약 한 시간에 걸쳐 덤불이 양옆으로 자리한 호수에 도착하게 되는데 *팡고른숲*을 연상케 하는 이끼로 뒤덮인 나무들이 다양한 새 종의 보고지 역할을 하면서 길을 따라 걷는 것 자체가 즐거움을 준다.

**전성기 시절 곤도르의 두네다인이 축성한 요새인 이젠가드는 깨부술 수 없는 검은 바위로 지어졌고 지상에서 500피트 높이의 오르상크 탑(신다르어로 '갈림길이 있는 언덕'이라는 뜻)를 포함하고 있다. 제3시대동안에 곤도르인들에 의해 버려졌다가 백색의 마법사 사루만이 다시 이곳을 점유하면서 풀이 우거진 정원을 파괴하고 요새로 만들었다. 그리고 탑 둘레 원 아래에는 많은 병기고와 구덩이를 만들어서 자신의 대군을 수용했다. 반지전쟁 기간동안 엔트들이 이젠가드를 파괴했지만 바위가 매우 단단해서 탑은 남겨지고 제4시대에 곤도르가 다시 여기를 되찾게 된다.*

산책로

글레노치 지역에는 멋진 등산로와 산책로가 많아 중간계의 아오테아로아(Aotearoa)가 선사하는 장엄하고 후미진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산봉우리와 굽이치는 개울, 갈색 풀숲과 푸른 덤불이 하나가 되어 *중간계*의 *에레기온* 지역을 완벽하게 재현한다. 그러므로 지팡이와 배낭, 맛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직접 자연을 탐험해볼 것을 권한다.

매우 좋은 숙박지로 킨로크로지(Kinloch Lodge)가 있는데

이곳은 와카티푸 호수 기슭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가족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이다. 텔레비전이나 전화가 되지 않는 이곳에서 며칠 간 보내는 밤은 순수 휴식 그 자체다. 숙박료도 저렴하며 옵션도 직접 음식을 만들어먹는 유스호스텔스타일에서부터 저녁, 잠자리, 아침이 포함된 헤리티지 룸(Heritage Rooms)에 이르기까지 옵션이 다양하다.

루트번 산책로가 가장 인기 있는 산책로 중 하나인데 사흘간에 걸쳐 킨로크 근처에서부터 헤리스 새들(the Harris Saddle)(1297미터)을 지나 밀퍼드 도로(Milford Road)로 가는 트램핑 코스이다.

킨로크 로지는 또한 다른 두 개 트램핑 코스로 갈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기도 하며 그 근처에서 출발 할 수도 있다. 그린스톤 트랙(The Greenstone Track)은 이삼일(37킬로미터)이면 그린스톤 스테이션(Greenstone Station)에서부터 시작해 그린스톤 강(Greenstone River)에서 맥캘라 호수(Lake McKellar)를 지나 밀퍼드 도로(Milford Road)로 가볍게 갈 수 있는 산책로이다. 캐이플스 트랙 (Caples Track)은 그린스톤(Greenstone)이 출발점이자 도착점이며 이삼일에 걸쳐 약 23킬로 구간을 올라가는 코스이다. 이 두 코스를 다 둘러보는 닷새 동안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을 탐험해 볼 수도 있다.

이 세 코스로는 가이드를 대동하여 가 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전문가이드의 인솔 하에 뉴질랜드의 풍부한 자연유산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다.

**에레기온(신다르어로 '호랑가시나무땅)은 리븐델 남쪽과 안개산맥 서쪽 면을 마주하며 자리 잡고 있다. 750년(제3시대)에 놀도르 엘프들이 정착한 이곳은 힘의 반지가 주조된 곳이기도 하다. 켈레브림보(페아노르의 후손)의 지휘 하에 엘프들이 모리아의 난쟁이들과 협력해나가면서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공예품을 제작했다. 하지만 그 후 750년 정도 지나면서 배반자 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우론이 비밀리에 절대반지를 주조해 모든 걸 통제하려 하면서 에레기온에 있는 모든 게 파괴되었다.

퀸즈타운 일일관광

퀸즈타운을 뒤로하고 아더스 포인트(Arthur's Point)이자 뉴질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인 애로우 타운으로 가는 주요 도로를 따라서 가보자. 가다보면 길이 에디스 카벨 다리(Edith Cavel Bridge)를 지나게 되며 거기서 왼쪽 아래에 숏오버 제트보트(Shotover Jet) 출발지점이 보인다. 여기서 강을 따라 고출력 제트보트를 타고 가는 관광코스를 제공하는데 이곳에서 스펙터클한 보트타기를 즐길 수 있다.

애로우 타운에서는 크롬웰 도로(Cromwell road)로 가기 전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애로우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면 *브뤼넨 여울목*을 볼 수 있고, 계속 가다보면 *글라덴 평원*에 도착하게 된다. 주요 국도에서 우회전해서 5킬로 정도를 가면 카와라우강 다리(Kawarau River Bridge)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차드농장(Chard Farm)으로 가는 길목이 있다. 이 길을 따라 약간 올라가면 *안두인강*이 나타나며 그 아래로 *왕들의 기둥*이 있던 장소가 보인다. 여기서 잠깐 쉬면서 점심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는 깁스톤밸리 와인레스토랑 (Gibbston Valley Wines)을 추천하는데 오른쪽으로 주요도로를 따라 더 아래로 내려가면 나온다.

하예즈 호수(Lake Hayes)를 경유해 퀸즈타운으로 다시 돌아와 디어파크 언덕(Deer Park Heights)으로 가자. 언덕을 올라가면 멋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다.

이제 퀸즈타운 공항으로 가서 헬리웍스(Heliworks)가 제공하는 45분간의 *중간계* 헬기탐험관광을 즐겨보자. 공항을 벗어나면 안개산맥의 가파른 경사면을 따라 *딤릴 데일*과 *카자드둠*의 문에 이르게 된다. 바로 아래에 실버로드강의 수원이 있고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잠깐 사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후에 *아몬 헨*을 지나게 된다. 여기서 사진 찍을 기회가 많이 주어지며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팡고른숲*을 지나 *돌 바란* 꼭대기 착륙장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서 *난 쿠루너(이젠가드와 오르상크탑)*가 모습을 드러낸다. 방대한 숲이 여러분에게 손짓하며 *로스로리엔*과 *팡고른숲* 외곽을 지날 때는 거대한 *안개산맥* 봉우리가 위로 솟구쳐 오른다. 바로 밑에 *아몬 헨*이 있으며 여기서 *루츠*가 *아라곤, 보로미르, 레골라스, 김리*와 마지막 전투를 벌였다. 여기서는 그레이트강(the Great River)을 경유해 퀸즈타운으로 돌아온다.

**뉴질랜드는 영화를 제작하기에 이상적이고 경이로운 환경이어서 쉽게 환상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보낸 시간이 즐거웠고 다시 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정말 멋진 곳입니다.*
-비고 모르텐슨(Viggo Mortensen;아라곤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보라 호수(Mavora Lakes)-*팡고른숲(Fangorn Forest)*

마보라 호수에 간다는 것은 두개의 고요한 호수가 있는 특별한 삼림지대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곳은 도시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안히 쉬면서 재충전 할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자기만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마보라 호수(Mavora Lakes)는 주요 5대 강인 테 아나우에 자리잡고 있다. 테 아나우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모스번(Mossburn)을 지나면 도로 표지판이 나오니깐 잘 살펴보자. (테 아나우로 가는 지름길도 있다.)

여기서부터 *팡고른숲*과 *넨 히토엘*로 가는 약 39킬로 길이의 비포장도로가 나오며 자동차로 45분이면 갈 수 있다. 35킬로 정도 가다가 마보라 호수에서 길이 갈라지기 전에 바로 오른쪽을 보면 관문이 보이며 왼쪽에는 수리한 울타리가 보인다. 왼쪽이 *팡고른숲* 가장자리이니깐 조심조심 걸어가다 보면 *엔*

트가 나무 수호자처럼 서 있는 걸 어렴풋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촬영을 하는 동안 영화에 등장했던 160여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른쪽에 있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은 상상하기 어렵다.

다시 왼쪽에 있는 울타리를 넘어 북서쪽 방향으로 250미터 정도 걸어가 보자. 이 곳에서 *에오메르*와 *로한*의 기마병들이 대전투 끝에 죽은 *오르크* 시체들을 태웠다. 경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이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깊은 숲 가장자리에는 갈색언덕이 있다.

**팡고른숲은 중간계에서 가장 오래된 곳 가운데 하나이다. 이리아도르 대부분을 감싸는 대삼림의 잔존물인 이곳은 중간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체인 엔트의 거주지이기도 하다.*
제1시대에 묘목에서 자라난 나무들은 만고의 세월을 거쳐 가장 거대하고 높은 나무가 되었다. 일부 숲 지대에는 깊은 골짜기도 나 있지만 여전히 어둡고 음산한 채로 남아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마보라 호수(Mavora Lakes)－***넨 히토엘(Nen Hithoel)***

현재 북마보라 남 끝단에 위치한 환경보전부 야영지가 숙박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웅대한 뉴질랜드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기회를 제공해준다. 화장실, 바비큐, 피크닉테이블과 그 외에 기념으로 가져갈 만한 것들이 있으며 호수에서 물을 길어 올 수도 있다. 도로를 통해 쉽게 호수로 갈 수 있으며 뉴질랜드의 동식물들이 온순해서 안전하게 캠핑을 즐길 수 있다. 통통한 갈색 송어가 먹이가 풍부한 호숫가를 따라 헤엄치고 있어서 호수에 낚싯대만 던지면 바로 잡을 수 있다(낚시철은 10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임). 몰론 낚시허가증이 있어야 낚시를 할 수 있으며, 자동차나 캠핑용 차량에 공간이 많이 남는다면 카약과 산악자전거도 꼭 챙길 것을 권한다.

북마보라는 영화 속에서 *넨 히토엘* 해안으로 나왔으며 *반지원정대*가 *안두인강*을 따라 내려오면서 여정의 마지막을 장식

하는 장면을 담았다.

길을 가다가 북마보라 남쪽 끝단을 지나면 공원벤치와 간이 화장실이 있는지 찾아보자. 여기서 차를 세우고 비탈길을 따라 150미터 정도 올라가면 숲에 들어서게 되는데 능선 꼭대기에서 커다란 나무그루터기를 찾아보자. 여기서 *메리*와 *피핀*이 *오르크*들을 피해 숨었고 그곳에 있던 커다란 나무덕택에 *프로도*가 *우르크하이*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러츠*와 동료 *오르크* 병사가 숲을 지나 *넨 히토엘*로 들어가는 장면도 여기서 촬영했다.

그리고 호숫가로 다시 내려가 북쪽으로 200미터 정도 걸어가다 보면 반지원정대가 해산되기 전에 불을 피웠던 모닥불가에 도착하게 된다. 이곳은 *프로도*와 *샘*이 *모르도르*를 향해 동쪽 호숫가를 지나는 장면을 촬영한 곳이기도 하다. 호수에 손을 담그고 잠깐 동안 숀 어스틴(Sean Austin)을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자. 매번 헤엄치고 나서 숀은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대형 건조히터에 몸을 말리고 나서 다시 촬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길다란 타원형호수인 넨 히토엘은 아고나스를 따라 세차게 흐르는 안두인강의 물줄기들을 모두 받아들여 라우로스폭포를 통해 떨어질 준비를 하는 지점이다. 엘프의 배를 서쪽 호수가에 정박한 후 원정대는 이 날이 원정대를 해산하는 날이 될 거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모닥불을 피우고 쉰다.*

마라로아강(Mararoa River)－*실버로드강(Silverlode River)*

남마보라에 있는 선개교 옆에 위치한 마라로아강 하구에서는 *원정대*가 *로스로리엔*을 떠나면서 *실버로드강*과 *안두인강* 합류점을 지나는 장면을 촬영했다(DVD 확장판에 수록).

갈색 송어와 무지개 송어가 강에 많이 살기 때문에 바비큐파티에 필요한 음식재료를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 물론 낚시허가증을 발급 받았을 경우에만 그렇다. 주변이 조용해서 덤불

붉은가슴 울새떼가 근처에 서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매가 온천위로 날아오르는 장면도 종종 볼 수 있다.

캠핑을 즐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퀸즈타운에서는 관광코스 도우미가 편의를 제공하며 테 아나우는 4륜 구동 차량을 이용한 일일관광 코스를 제공한다. 퀸즈타운에 있는 헬리웍스(Heilworks)도 이곳으로 오는 헬기관광코스를 제공한다. 모스번 인근마을은 농장민박을 제공하며 이 지역에서 일일여행을 할 수 있는 본거지로 이용할 수도 있다. 테 아나우의 도시는 차로 45분 정도면 갈 수 있으며 근처에서 관광을 즐기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

톨킨의 소설에 묘사되어 있는 *실버로드강*은 수원인 *난두히리온*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여 *로리엔*을 통해 *안두인 대하*로 흘러가는 맑은 강이다. 마라로아강은 남마보라를 지나면서 그 강을 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곳 강의 원초적 미를 생생하게 각인시킨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테 아나우(Te Anau)-소개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으로 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테 아나우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옆에 자리 잡고 있다. 덤불이 울창하게 덮인 호수가 기슭에 서서 우뚝 솟은 봉우리를 응시하며 시선을 위로 옮기면 왜 이곳을 통해 *중간계*에 나오는 산악지형을 화면에 옮겼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호수인 테 아나우 호수는 너비 43,000헥타르에 수심이 417미터나 된다.

이곳에 있는 밀퍼드 사운드(Milford Sound), 다웃풀 사운드(Doubtful Sound), 테 아나아우 동굴들(Te An-au Caves)을 모두 관광하는 멋진 여행을 제대로 하려면 족히 사흘은 걸린다. 밀퍼드 사운드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피오르드지형이며 해마다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차나 비행기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이 곳을 찾는다. 인기 있는 코스는 헬기나 차를 이용한 관광코스인데 관광객들은 유명한 밀퍼드 트랙과

수더랜드 폭포(Sutherland Falls)(높이 580.3미터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폭포 중 하나임), 그리고 밀퍼드 사운드를 공중에서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조그만 비행장에 착륙하면 확 트인 바다를 유람할 수 있는 배도 마련되어 있다. 강어귀에서 바라보는 풍경도 장관이며 돌아오는 버스에서 바라보는 경관도 멋진데 그렇게 오다가 체이슴(Chasm)<(클레다우강(Cleddau River) 단단한 암석을 깎아 내려간 곳)>과 호머터널(Homer Tunnel)에 멈추게 된다.

거기서 레드클리프 바 & 까페(Redcliff Bar & Cafe)에는 꼭 가보자. 거기서 촬영하는 동안 배우들이 이 곳을 즐겨 찾았으며 동업주인 메간 하비(Megan Harvey)가 갖고 있는 사인 티셔츠가 그걸 증명하고 있다. 어느 날 가진 저녁식사는 시 낭송의 밤 시간과 맞아 떨어질 때가 있었다. 다양한 시를 낭송하고 나서 깊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더니 세익스피어 소넷을 낭송하기 시작했다. 낭송이 끝나자 방문객들은 박수를 쳤고 존 라이스 데이비스(John Rhys Davis:김리역)는 머리 숙여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타카로 도로(Takaro Road)－*팡고른숲(Fangorn Forest)*

타카로 도로에는 멋진 덤불지대가 있다. 테 아나우를 뒤로하고 퀸즈타운 주요 고속도로로 가다가 몇 킬로 더 가다 보면 나오는 카카포 도로(Kakapo Road)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 보자. 6킬로 정도 더 가다 보면 비포장도로를 거쳐 밝은 덤불숲을 지나면서 이름 모를 진입로가 왼쪽으로 나타난다. 거기서 약간 구부러지는 곳에 차를 세우자. 그 도로 양쪽에서 *팡고른숲*을 촬영했으며 높이 친 줄에 매달아 놓은 원격카메라로 *아라곤*이 숲을 헤쳐 나가는 장면을 찍었다. 빨간 너도밤나무와 은빛 너도밤나무로가 무성한 이 아름다운 숲은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듯 숲 아래가 진한 초록색을 띤 이끼로 뒤덮여 있다.

너도밤나무는 꽃가루가 바람에 날려 오면서 수분이 된다. 수

분이 이루어지면 너도밤나무꽃은 조그만 견과형태의 씨를 만들어낸다. 그 씨는 몇 미터 정도 날아가다가 숲 아래로 떨어지며 여기서 발아해서 부모나무의 그늘 속에서 자란다. 햇빛이 숲 아래로 반만 내리쬐기 때문에 묘목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다 성장한 나무가 지면에 쓰러져 빛에 완전히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 성장한다. 어엿한 나무로 자라면 최대 30미터까지 자랄 수 있으며 300년 이상 살 수도 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 가는 것은 깨끗한 공기와 수정처럼 맑은 물, 그리고 나무에 신록이 가득한 말 그대로 정말 다른 세상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우뚝 솟은 거대한 산정상과 화산도 있었고 강과 개울도 있었죠. 톨킨이 뉴질랜드를 지나면서 이곳에 앉아 반지의 제왕 3부작을 써 내려갔던 것 같아요.*

–숀 어스틴(Sean Austin:샘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와이아우강(Waiau River), 켈퍼트랙(Kelper Track)– *안두인강(River Anduin)*

테 아나우 호수에서 마나포우리 호수를 따라 흐르는 와이아우강(Waiau River)은 웅대한 *안두인강*을 닮았다고도 한다. 덤불로 무성한 강둑은 *원정대*가 강을 지나 *머크우드*와 오래전에 *엔트와이프*가 정원을 만들었던 *에민 무일* 사이에 위치한 갈색분지로 가는 첫 장면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테 아나우 중심지에 있는 강으로 갈 수 있으며, 퀸즈타운에 있는 헬리웍스(Heliworks)의 세 가지 헬기관광코스를 통해 마나포우리 도로와 강 전체를 감상할 수도 있다.

테 아나우에서부터 시작하는 캘퍼트랙 코스 67킬로 구간은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들을 위한 멋진 코스이다. 삼사일간에 걸쳐 호수가, 너도밤나무숲, 산정상과 U자형 빙하계곡을 거쳐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력이 필요하며 이 코스를 통해 영웅들의 여정을 직접 음미해 볼 수 있다.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테 아나우/마나포우리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환경보전부 지정 레인보우리치(Rainbow Reach)표지판이 보이는 지점에서 우회전하자. 그리고 처음에 왼쪽방향으로 비포장도로가 튀어나오면(그리고 다시 오른쪽방향으로 바뀌기 전에) 표시되지 않은 길로 우회전해서 내려가자. 그 지점에서 *안두인강*의 장엄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거기서 진입로 쪽으로 2킬로 정도 더 가면 선개교가 강 위를 가로질러 세워져 있어서 캘퍼트랙 코스에서 잠깐 산책할 수 있다. 거리는 10.9킬로이지만 조금만 들어가도 너도밤나무 숲이 나오며 아름다운 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다. 캘퍼트랙 코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테 아나우에 있는 환경보전부 본부에 가면 알 수 있다.

**톨킨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다른 세상, 다른 땅, 원시의 땅과 원시시대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뉴질랜드가 톨킨이 추구하던 세계와 딱 들어맞았던 것입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존 라이스 데이비스(John Rhys–Davies:김리역)

마나포우리호수(Lake Manapouri), 다웃풀 사운드(Doubtful Sound)

테 아나우에서 약 12킬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마나포우리 호수(상심의 호수)는 때묻지 않은 자연미를 보여주는 지역이며 조그마한 섬들이 흩뜨려져 있는 그 파란 호수와 덤불이 무성한 캘퍼산은 관광객들에게 이곳을 더 자세히 탐험하고 싶도록 유혹한다.

촬영하는 동안에는 예기치 못한 날씨로 인해 11월에 눈이 내리는 사태가 발생했다. 크고 젖은 눈송이가 땅에 쌓이기 시작했고 불쌍한 *호빗*들을 덮어버렸다. 눈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20센티까지 쌓이자 출연진과 제작진들은 재빨리 근처에 있는 마나포우리 회관으로 촬영장소를 바꿨다.

이 지역을 제대로 탐험하는 방법 중 하나는 피오르드랜드 여행사(Fiordland Travel)가 운영하는 다웃풀 사운드 일일관광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호수를 지나는 유람선여행으로 시작되는 이 코스는 웰못패스(Wilmot Pass)(670.9미터)에서 버스로 이어지며 세 시간 동안 다웃풀 사운드가 있는 바다를 보트로 유람을 하면서 끝을 맺는다.

밀퍼드 사운드의 3배 길이에 면적이 10배에 달하는 다웃풀 사운드에서는 약 60마리의 병코돌고래 떼를 볼 수 있으며 뉴질랜드 물개가 니 섬(Nee islet)의 바위 위에서 일광욕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다. 사운드 주변에서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아서 보기 힘든 피오르드랜드 투구펭귄도 듬성듬성 보인다.

이러한 경관은 수백만 년에 걸쳐 바위와 얼음이 충돌하면서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깊고 시원한 온대성 열대우림으로 뒤덮여 있다. 유람하면서 느끼는 '침묵의 소리'와 완전한 적막감은 이 여행이 주는 여러 가지 매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마나포우리 호수를 지나면서 시선을 오른쪽 산 정상으로 돌려보자. 이곳 고지대에는 노웨스트호수(Norwest Lake)가 있는데 *원정대*가 *리븐델*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노웨스트 호수(Norwest Lakes)-*리븐델 남쪽(south of Rivendell)/여울목으로의 도주(flight to the ford)*

헬기는 이곳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사슴 사냥꾼들이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 이 곳에 올라와 여기 일대를 샅샅이 뒤졌다. 지금에 와서는 상업적 사냥대신 농업이 대신하고 있지만 헬기는 지금도 남아 좀더 외딴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운송수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반지원정대*가 남쪽으로 향하면서 황량하고 바위투성이의 땅이 이들 앞에 펼쳐지는데 캘퍼산 높은 곳에 있는 노웨스트 호수는 *중간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아르웬*과 *프로도*가 *검은 기사*단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

면서 여울목으로 도주하는 장면도 테 아나우 근처에서 촬영했다. 이 지역은 헬리웍스(Heliworks)의 장거리 헬기관광코스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다.

센트럴 오타고(Central Otago)-소개

센트럴 오타고는 뉴질랜드에서 사계절의 변화가 매우 뚜렷이 나타나는 곳이다 여름철에는 기온이 섭씨 30도를 넘어서며 언덕 위에서는 뜨거운 열기로 인해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최고 영하 15C까지 내려가면서 유령 같은 회백색 서리가 나무들을 뒤덮는다. 가을이 되면 이 지역 일대의 포플러나무와 버드나무가 황금빛 바다를 이루면서 겨울을 날 채비를 한다. 봄에는 과일나무가 눈부신 꽃망울을 내밀며 따뜻해진 날씨를 환영한다. 1862년에는 골드러쉬로 인해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었다. 처음에는 쉽게 얻을 수 있었던 금이 곧 바닥이 나자 인구가 줄어들었다가 18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준설작업을 통해 금을 채취하려는 발상이 나오면서 알렉산드라(Alexandra) 근처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그 후 준설작업도 움츠러들기 시작할 즈음에 주민들은 이 지역 토양이 산화칼슘과 인이 풍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이 때부터는 과수원이 금을 대신하게 되었다. 클라이드(Clyde)마을에는 지금도 1800년대 풍 건물이 있으며 지역특산품을 넣어 만든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고 있다.

알렉산드라는 센트럴 오타고 지역의 주요 서비스마을이며 그 곳에는 금 발견과 관련한 다양한 관광지가 있다. 특히 여름철에 인기가 많은 이 곳은 뉴질랜드에서 가장 강수량이 적은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을 탐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센트럴 오타고 철도를 이용해서 가는 것이다. 열차는 이제 사라졌지만 클라이드(Clyde)에서 미들마치(Middlemarch)로 가는 150킬로 구간이 자전거, 말, 보행자용 도로로 바뀌었다. 이런 길들을 이용해서 쉽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일 여행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멋

있는 경관을 감상하려면 자전거를 빌려서 타고 가다가 길가에 있는 호텔에서 하룻밤 묵고 가는 걸 권한다.

이다 계곡(Ida Valley)－*로한(Rohan)*

이다 계곡의 러프능선 높은 곳에서 풀번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로한* 지역을 한눈에 떠올리게 한다. 뚜렷이 구분되는 험준한 바위산과 광대한 경치가 리더마크(Riddermark)의 영역과 비교되기 때문에 그곳을 촬영지로 삼은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풀번 저수지는 외딴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며 그곳의 골짜기는 4륜 구동차량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위험에 노출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세 계절 동안에 눈이 내리기 때문에 날씨가 갑자기 변할 수도 있다.

알렉산드라에서 40분이면 가볍게 갈 수 있는 지점에 이르면 산기슭으로 통하는 포장도로가 나오며 이 길을 따라 오마카우(Omakau) 마을로 갈 수 있다. 이 근처에 있는 경마장은 영화 제작실로 사용되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조그만 오두막인 오빌(Ophir)로 가 보자. 1863년 이곳에서 금이 발견되었으며, 오빌은 시바의 여왕(Queen of Sheba)이 솔로몬왕을 위해 금을 구했다는 성서상의 지명을 딴 것이다.

길은 레지디능선(Raggedy Range)을 지나면서 경사가 나타나게 되며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한 그 산 정상에서 멋진 풍광을 감상할 수 있다. 하늘은 주로 진한 푸른색을 띠며 여름에는 찌는 듯한 열기로 인해 금광지역으로 가는 길이 얼마인지 거리를 제대로 가늠할 수조차 없게 된다. 골짜기에서 내려오고 난 뒤 풀번 호텔에서 우회전하여 모아 크리크 도로(Moa Creek Road)를 타고 가고 계속해서 가다가 웹스터레인(Wester Lane)도로에서 좌회전하여 비포장도로를 타고 가자.

풀번으로 올라가는 길은 본스피엘 스테이션(Bonspiel Station)에서부터 시작되며 산악용으로 적합한 차량이 없다면 여기에 주차하는 게 현명하다. 이 지역 땅주인은 4륜 구동차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을 이용한 풀번 관광코스를 만들었으며 대다수 촬영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로한*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이상적인 후원자 역할을 한다. 처음 이곳에 정착한 중국광부들의 오두막에서는 홈스테이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제작진과 출연진은 여러 주 동안 풀번에서 촬영하는 동안 알렉산드라와 크롬웰을 포함한 많은 지역에 머물렀다. 도로 상황 때문에 모두 언덕기슭에서 만나 4륜 구동차량으로 이동했다. 이 때문에 촬영시간이 매우 길어져서 오전 5시에 시작해서 오후 8시에 끝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풀번(Poolburn)－*로한(Rohan)*

풀번댐은 1931년에 완공되어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이다계곡(Ida Valley)아래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호수 역할을 하였다. 이 지대에는 금이 풍부하며 골드러쉬가 절정기에 달할 때에는 다섯 군데 호텔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액체형 손난로를 나눠주기도 했었다. 오늘날 이곳은 인기 휴양지가 되었으며 저수지에는 갈색 송어가 많이 산다.

호수에 도착하면 조그만 마을 너머까지 전경이 보이는데 이곳에서 *모르웬*이 공격받기 전에 자신의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는 장면을 촬영했다. 마을이 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그 위치는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호빗*들이 *사루만*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는 장면과 *아라곤*, *김리*, *레골라스*가 그 뒤를 쫓는 대 추격 장면을 촬영했다.

피터잭슨(Peter Jackson)－추천장소

내가 추천하는 장소는 길이나 코스가 없어서 헬기로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테 아나우 근처에 있는 노웨스트 호수가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다. 우리는 반지원정대가 모리아로 향하는 여러 장면을 헬리콥터 위에서 촬영했다. 영화에서

는 두 세 컷 정도밖에 나오지 않지만 내게는 매우 특별한 곳이다.

착륙하자마자 헬리콥터에서 나와 주변을 걷는 것도 매우 즐겁다. 이곳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멋진 곳이다. 내가 도보여행가(tramper)는 아니어서 그런지 올림푸스산과 오웬산은 평소 때라면 절대 가지 말라고 하고 싶은 두 군데 장소라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영화를 찍어야 했기 때문에 정말 놀랍도록 경이로운 그곳에 할 수 없이 가게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라도 가보게 된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외에 센트럴 오타고에 있는 풀번도 내가 좋아하는 곳이다. 우리는 로한에 딱 들어맞는 지역을 물색 중에 있었는데, 톨킨은 자신의 소설에서 초원지대인 로한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베리아의 대초원이나 미국의 초원지대와 거의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뉴질랜드에는 그러한 지대가 없었다. 하지만 풀번 근처 센트럴 오타고내에는 바위가 들쑥날쑥 튀어나오면서 약간 경사가 진 언덕이 광대하게 펼쳐진 지대가 있었던 것이다. 톨킨이 묘사한 언덕들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그런대로 멋지고 놀라운 풍광을 선사했다.

또한 그곳에는 어느 정도 방대한 느낌이 녹아 있었다. 카메라를 내려놓을 수 있는 곳에서 실제 한 방향으로만 보면 50킬로 정도 거리까지 볼 수 있었으며 전선, 집, 길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오직 그 광활함만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마치 풀번이 존 포드(John Ford)감독이 연출하는 서부극의 모형을 그대로 영화 속에서 재현하는 듯했다. 풀번에 우리가 찾는 풍경이 있었기 때문에 *로한*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것이다.

그곳은 작지만 멋진 장소였고 호수가 근처에는 주말을 만끽할 수 있는 아담한 집들이 있었다.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매력적이었고 우리가 갔던 곳들도 모두 내 마음에 쏙 들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리차드 테일러(Richard Taylor)-추천장소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에도라스*가 될 뻔했다. 하지만 내가 갔던 곳들 중에 포츠산 만큼 좁은 공간 안에 하나의 문화를 압축해 놓은 곳은 없었다. 또한 그곳은 내게 소설의 비전을,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반지의 제왕'을 둘러싸고 제작된 예술작품들에 대한 내 인식을 깨우쳐 주었다. 마을을 지날 때는 완전히 세트장으로 제작한 곳을 지났지만 산 위에는 거대한 준봉이 자리 잡고 있으며 산 아래로는 평원이 내려다보이는 눈 덮인 장대한 산을 드러내며 360도 파노라마를 연출하는데 정말로 장관이었다. 그러고 나서 예술부가 대담함과 비전을 가지고 거대한 바위투성이의 돌출부 위에다 이렇게 멋진 도시를 세운 것이다.

*에도라스*에 들어간 날 나는 거기서 작업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마을사람들 틈 속이나 *로한*의 왕궁경비대, *세오덴 왕*과 *에오윈* 곁에 서기도 하면서 이러한 경이로운 환경 속에서 제작진과 자리를 함께 했다. 그리고 이곳은 나를 전 세계에 있는 고대 도시의 폐허 속이나 영국의 대성당 한가운데로도 데려다 주기도 했다.

나는 멀리 떨어진 산 위에서 몇몇 뉴질랜드사람들이 창조한 다른 차원의 세계에 있었으며 그 세계는 정말로 진짜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 곳에 있는 모든 게 생각보다 정말 장엄했습니다. 풍광도 톨킨의 옥스퍼드 샤이어(Oxfordshire)처럼 비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식물들도 좀처럼 볼 수 없는 종이었고 산도 매우 가파른 듯 했습니다. 시인들이 경외감에 가득 차 '장엄하다'는 말이 나오는 곳을 찾고 싶다면 뉴질랜드가 바로 그곳입니다. 영국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지 못하지만 뉴질랜드는 그렇지 않죠.*

-이언 맥켈렌(Ian McKellen:간달프역)

뉴질랜드 관광코스

중간계를 통해 아오테아로아(Aotearoa)를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중요한 장소 대부분이 포함된 23일 일정코스를 여기에 실었다. 투어는 오클랜드에서부터 시작해 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에서 끝나며 중간계행 공식 항공인 에어 뉴질랜드(Air New Zealand)를 이용하면 편하게 갈 수 있다.

1일:오클랜드(Auckland)-마타마타(Matamata)-타우포(Taupo)
▷*호비튼(Hobbiton)*

2일:타우포(Taupo)-샤또호텔(The Chateau)

3일:샤또호텔(The Chateau)▷*모르도르(Mordor)*

4일:샤또호텔(The Chateau)-오하쿤(Ohakune)▷*이딜리엔(Ithilien), 모르도르(Mordor)*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일:오하쿤(Ohakune)-오타키(Otaki)▷*안두인강(River Anduin)*

6일:오타키(Otaki)-웰링턴(Wellington)▷*샤이어를 떠나며(Leaving the Shire)* ▷*펠렌노르 평원(Pelennor Fields)*

7일:웰링턴(Wellington)▷*샤이어를 떠나며(Leaving the Shire)*
▷엠버시 영화관(Embassy Theatre)
▷초콜렛 피쉬 까페(Chocolate Fish Cafe)
▷*던하로우(Dunharrow)*

8일:웰링턴(Wellington)-말보로(Marlborough)▷*안두인강(River Anduin)*
▷*리븐델(Rivendell)*
▷*이젠가드정원(Isengard Gardens)*

9일:마틴보로(Martinborough)▷ *딤홀트길(Dimholt Road)*

10일:마틴보로(Martinborough)－웰링턴(Wellington)－넬슨(Nelson)
▷공예장인들(Artisans)

11일:넬슨(Nelson)▷ *쳇우드숲(Chetwood Forest)*
▷ *리븐델 남쪽 러프 컨트리(Rough Country South of Rivendell)*
▷ *딤릴 데일(Dimrill Dale)*

12일:넬슨(Nelson)－메트번(Methven)

13일:메트번(Methven)－트와이젤(Twizel)▷ *에도라스(Edoras)*
▷ *펠렌노르평원(Pelennor Fields)*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4일:트와이젤(Twizel)－와나카(Wanaka)▷ *여울목으로의 도주(Flight to the Ford)*
▷ *리븐델 남쪽 러프 컨트리(Rough Country South of Rivendell)*

15일:와나카(Wanaka)－글레노치(Glenorchy)▷ *아고나스의 기둥(Pillars of the Argonath)*
▷ *브뤼넨 여울목(Ford of Bruinen)*
▷ *글라덴평원(Gladden Fields)*
▷ *아몬 헨(Amon Hen)*
▷ *이딜리엔캠프(Ithilien Camp)*

16일:글레노치(Glenorchy)－퀸즈타운(Queenstown)
▷ *이젠가드(Isengard)*

▷*로스로리엔(Lothlorien)*
▷*아몬 헨(Amon Hen)*

**우리는 번지점프, 서핑, 오토바이타기 등 할 건 다 해봤죠. 관광, 아메리카컵 요트경기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해본 저희는 뉴질랜드 원정대였습니다.*

-숀 어스틴(Sean Astin:샘역)

17일:퀸즈타운(Queenstown)▷디어파크언덕(Deer Park Heights)
▷*딤릴 데일(Dimrill Dale)*

18일:퀸즈타운(Queenstown)-마보라호수(Mavora Lakes)-테 아나우(Te Anau)▷*아몬 헨(Amon Hen)*
▷*팡고른숲(Fangorn Forest)*

19일:테 아나우(Te Anau)▷*안두인강(River Anduin)*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일:테 아나우(Te Anau)▷퀸즈타운(Queenstown)

21일:퀸즈타운(Queenstown)▷프란츠 조세프(Franz Josef)

22일:프란츠 조세프(Franz Josef))▷*봉화의 점화(Lighting of the Beacon)*

23일:프란츠 조세프(Franz Josef)-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근처에는 숲이 있었습니다. 멋진 강도 근처에 있었죠. 어느 도시든 간에 자연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난 곳이 없었습니다.*
-비고 모르텐슨(Viggo Mortensen:아라곤역)-

작가소개

뉴질랜드 공군 박물관 소장이자 곡예 비행쇼도 주관하는 이안 브로디는 뉴질랜드 태생으로서 행사를 주관하던 도중 알게 된 피터 잭슨 감독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터 잭슨과 마찬가지로 경비행기와 톨킨 매니아이기도 한 이안 브로디는 이후 영화 제작에 맞추어 반지의 제왕 안내서 집필작업에 들어갔으며 그러한 결실을 책으로 내 놓았다. 이 책에 대해 이안 브로디는" 영화 매니아와 여행 매니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길잡이" 라고 소개했다. 2005년 6월 6일에는 뉴질랜드 관광산업 공로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박정국, 『오역천하』, 어울림, 1995.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 현암사, 1996.
안정효, 『번역의 공격과 수비』, 우석출판사, 2002.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넥서스, 2001.
고노 이치로, 『오역을 하지 않기 위한 영어번역사전』, 클레오, 2003.
디키 해외여행 시리즈, 『뉴질랜드』, 서울문화사, 2003.
J.R.R Tolkien 저(한기찬 역), 『반지의 제왕』, 황금가지, 2002.
Karen Wynn Fonstad, 『The Atlas of Middle-Earth』, Houghton Mifflin Books, 1991.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